

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2호 (9월 7~13일)

특집1-반이회창
특집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영도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

미군철수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h-2a 발사, 위성발사중지립장을 고려해 보지 않을수 없다
김준배열사 경찰의 폭력살인,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대회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12호 (9.7~13)



미국 시엔엔텔레비전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83(1994)년 4월 17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자국내의 핵개발장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적 사찰을 거절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세계적으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 대한 압력소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비핵, 평화애호 국가입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시기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개발장소에 대한 사찰시기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 사찰에 관하여 일어난 분쟁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떤 조건하에서 자기의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사찰을 허용하려 합니까?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한 이후에도 우리의 핵활동의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필요한 사찰을 계속 받아들였습니다. 사찰과정에 일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 효력발생을 임시정지시킨 특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 상황입니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유관측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그 누구의 부당한 요구에 추종한다면 핵문제는 언제 가도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난해 3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와 압력에 대처하여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였습니다. 그후 조미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어 공동성명이 채택되고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조건에서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을 임시정지시켰습니다. 그런 것만큼 앞으로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성원국으로 계속 남아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이 우리와의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측에 핵문제를 일괄타결방식으로 해결할 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조미회담이 공정하고 평등한 기초위에서 진행되어 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만일 유엔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당신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려고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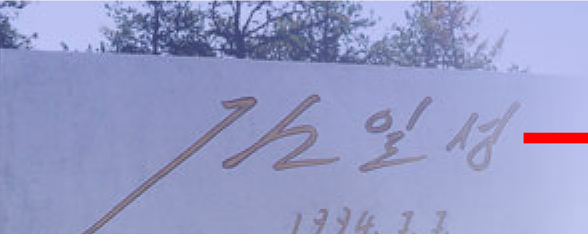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제재≫를 가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자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적대행위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응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긴장된 정세하에서 당신의 생각에는 현 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핵문제로 하여 매우 긴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압력이나 위협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세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조미사이의 회담을 통해서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 주석님께서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대통



령에게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조선과 미국사이에 지속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이며 현시대의 요구입니다. 냉전에서 벗어나 화해와 친선, 협조에로 나아가는 국제관계의 현 추세가 조미사이의 관계에도 응당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선린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우리와의 대결관념을 버리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용의를 가지고 나온다면 조선과 미국이 벗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미국측에 이러한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클린턴대통령이 시대의 추세에 맞게 국제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를 가진다면 조선반도에서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세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남아프리카의 만델라와 데 클레크 등 오랫동안 원쑤로 있던 사람들이 대결로부터 협상과 평화에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컨대 평양으로 고위급미국대표단을 초청하든가 혹은 후날에 클린턴대통령이나 김영삼과의 수뇌자회담을 진행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조선에서도 유사한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추세에 맞게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과 세력들이 협상과 평화에로 움직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수뇌자회담이 진행되어 조선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데 기여하자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담이 성립될 수도 없고 설사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결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나온다면 우리와 클린턴대통령과의 회담이 열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남조선당국자와의 회담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북과 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통일의 방도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도 집권초기에 우리와 만나자고 하였으나 실지에 있어서는 외세에 추종하면서 계속 대결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남최고위급의 특사교환을 위한 회담도 결렬상태에 몰아넣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실로 우리와의 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면 속에 품은 칼을 내놓고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

– 당신은 조선이 당신의 생전에 통일되리라고 믿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누구의 영도하에 통일되리라고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넘겨주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난관과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온 민족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을 갈망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운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자기 조국을 통일하려는 한결같은 지향과 거족적인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없습니다.

조선의 통일은 누구의 영도하에 실현된다기보다 민족공동의 지향과 노력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강령이 있습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이것은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통일을 바라고 통일역량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 있는 이상 우리 나라의 통일은 민족의 단합된 힘과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실현되고야말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세기와 더불어≫ 2권



나는 오가자에 가있을 때 문조양의 형 문시준과 최일천이네 집신세를 많이 졌다. 문시준은 마음씨가 후한 사람이었다. 그는 몇 달씩이나 돈받지 않고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우리가 오가자에서 활동할 때 문시준이 우리 일행을 위해 돼지까지 잡아주며 아무쪼록 나라를 기어이 독립시켜달라고 부탁하던 일이 어제일 같다. 나는 그 집에서도 오래동안 침식을 하였다. 문시준이네 집에서는 식사를 할 때마다 밥상에 마늘짠지를 놓아주군했는데 그 짠지맛이 별맛이었다. 그 마늘짠지 맛이 얼마나 독특했던지 해방후 문시준의 딸 문숙곤을 만나니 그 생각부터 났다. 그래서 그를 초청해다가 마늘짠지 만드는 방법을 배워주게 하였다.

내가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마늘짠지를 만들어 밥상에 놓아주지만 어려운 때 오가자에서 조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달게 먹던 그 짠지맛에는 비길 수가 없다.

얼마전에 문조양은 생일 80돐을 쇠였다. 나는 그때 오

가자시절을 생각하며 그에게 꽃다발을 보내주고 팔갑상을 차려주었다. 나는 오가자에서 반제청년동맹위원장이며 ≪농무≫의 주인이었던 최일천의 집에서도 몇주일씩 류숙하였다.

그 당시에는 그를 최천, 최찬선이라고도 불렀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찍혀진 최형우라는 이름은 해방직후 서울에서 저술사업을 할 때 사용한 그의 필명이다.

오가자에서는 그가 제일 개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김혁처럼 시는 짓지 않았지만 뛰어난 산문가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유로 여러해동안 장춘에 나가 비밀공작원활동을 하면서 ≪동아일보≫지국장의 일을 맡아보았다. 그 과정에 우리에 대한 자료도 많이 수집하고 좋은 글을 써서 투고도 자주 하였다.

최일천은 일본정보계통이 주목하는 ≪요시찰인≫이었다. 그가 맡아보는 ≪동아일보≫지국의 출입문밖에는 매일같이 일본헌병들과 밀정들이 와서 그를 감시하느라고 당번을 섰다. 적들이 최일천을 주목하게 된 것은 그가 장춘에 나와서도 청년들과의 사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이며 국내애국인사들과의 밀접한 련계밑에 우리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만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한 다음 그는 반제청년동맹조직을 통하여 직접 육성한 여러명의 핵심청년들을 항일유격대에 보내주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 반영된 재만조선인들의 민족해방투쟁 실상과 그것을 유감없이 구사한 활달하고도 격정적인 필자는 바로 이상과 같은 혁명실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수련된 것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일천은 심양과 베이징에 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에 나와 국내의 저명인사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항일무장투쟁의 전과를 소개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그 정신에 따라 민족문화와 민족의 얼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일천은 일본관헌들의 박해와 감시가 심해지자 ≪동아일보지국의 일을 할 때 만주각지를 돌아다니며 손수 수집해놓았던 우리의 투쟁자료들과 독립운동자료들을 가지고 서울에까지 나와 당시 조선어학회를 책임지고 있던 리극로선생에게 그 자료들을 모조리 넘겨주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우리가 오가자에서 발간한 ≪농우≫잡지 묶음도 있었다.

≪이것은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입니다. 적의 감시와 추적 속에서 사는 나에게는 이 자료들을 간수할 힘이 없습니다. 나라가 독립되면 이 자료들로 력사서술을 하려고 하는데 리선생이 어떻게 하나 그때까지 잘 보관해주기 바랍니다.≫

그때 최일천은 이런 부탁을 만기고 만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해방직후 리극로선생이 자기의 부탁을 받고 소중히 보관해온 자료들을 넘겨받아가지고 단숨에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를 써냈다. 그 책은 파지를 모아 제조한 모래알까지 섞인 재생지에 인쇄된 것이었으나 구독자들이 너무 많아 력사와 문학을 전공하는 젊은 지식인들이 백지에 전문을 베껴가지고 다니면서까지 탐독하는 인기도서로 되었다.

최일천은 해방직후 미군정이 반공반북을 이남땅의 ≪국책≫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총검으로 떠받들어주는 살벌한 환경 속에서 반일투쟁만화도 찍어내며 청소년들에게 반제반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해방 후 정치적 혼잡과 무질서가 지배하던 서울장안에서 그가 온갖 정신력을 다 동원하여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와 같이 무게있는 글을 써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최일천은 해방 후 남조선 정계에 진출하여 조선혁명당 정치부장, 신진당 중앙위원회부장, **김일성**장군환영위원회 위원, 민족자주련맹 집행위원 등 주요직책을 력임하면서 려운형, 홍명희, 김규식 등의 인물들과 손을 잡고 민주력량의 집결과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는데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에서 반동들에게 피살되었다.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는 최일천의 미완성작이다. 그는 원래 2집을 낸 다음 계속하여 다음 권을 쓰려고 하였으나 해방 후 복잡한 남조선정치무대에 발을 들이민 후 시간을 내지 못하여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 책은 다음권에서 필자는 우리의 혁명활동을 전면적으로 서술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최일천이 살아있었더라면 우리의 혁명력사와 관련된 흥미있는 사료들도 더 나왔을 것이다.



선군혁명영도와 민족의 미래

조연택 / 구국전선 9월 11일

오늘도 변함없이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억세게 이어가시는 백두의 영장 **김정일**영수님의 거룩한 모습은 우리 이남민중 뿐아니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찬탄과 흠모의 정을 끝없이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명절이나 휴식일에도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쉼없이 걸어 오시었다.

올들어서만도 수십차에 걸쳐 군부대시찰을 단행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어느날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선군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온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 그것은 민족의 안녕과 미래를 위한 애국애족의 성스러운 위업이다.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사면팔방으로 달려들던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 영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기치를 드시고 그동안 끊임없는 선군혁명영도의 거룩한 자국을 새겨오시었다.

그리고 군민이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낙관을 가지도록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를 제시하시어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군민이 부닥치는 난관을 웃으며 이겨내도록 하시었다.

영수님의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는 정권은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된다는 위대한 총대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가장 정당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고 영도방법이다.

역사는 군대가 강하지 못하고 국방력이 약하면 조국과 민족의 안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피비린내나는 침략역사가 그것을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은 사회주의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 저들의 흉악한 지배주의적 정책에 장애로 되는 나라들을 무력을 동원하여 침략하고 압살해 왔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침략과 고립압살책동이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이다.

만일 **김정일**영수님의 탁월한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가 없었다면 과연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미국은 이라크처럼 북침전쟁을 감행했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번져 3천리강산이 폐허로 되고 우리 민족은 참화를 또다시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영수님께서 선군혁명영도로 이북의 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원자폭탄으로도 깰 수 없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루어냈기에 미국은 감히 침략의 불을 지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은 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의 빛나는 결실인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영수님의 선군혁명영도사는 성스러운 미래사랑의 위대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다.

영수님께서는 오늘만이 아니라 통일강성대국에서 행복을 구가할 민족의 휘황한 내일을 위해 고난도, 시련도 달게 여기시며 선군혁명영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오시었던 것이다.

이 길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통일의 길에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영도에서 우리 민중은 통일조국과 융성번영할 민족의 내일을 보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청년학생의 자세

동국대 한서흥씨의 글 / 구국의 소리 9월 3～4일

지금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행위는 날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회창은 온 민족, 온 국민이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주장하며 민족자주통일의지를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희세의 매국노,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놔두면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수 없고 남북사이에 대화는 물론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 더욱이는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터질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이 될수 밖에 없다. 이회창의 존재는 이제 백해무익하며 이 자를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불의에 가차없고 정의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국의 부름에 부응하여 결연히 일어나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을 열어야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속에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죄악을 폭로단죄하는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이다. 대민홍보활동은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서는 선차적작업니다.

청년학생들은 현시기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이회창 애비의 친일행적문제를 비롯하여 지난 시기 이회창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민주인사들을 투옥, 학살한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해야한다.

이와함께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반통일적, 친미사대주의적, 반민주적행위들을 사사건건문제시하고 그로부터 초래될 악결과를 각계 민중에게 널리 선전해야한다.

특히 미국의 민족앞길가로막기에 추종하면서 철저한 ≪검증론≫, ≪상호주의≫, ≪북한퍼주기시비≫,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부르짖으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제2의 냉전을 몰아와 우리 민족을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이회창의 죄행을 여지없이 발가놓아야 한다.

반이회창홍보활동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시간과 장소, 수단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능숙히 구사해나가는 것이다. 한총련과 총학생회들은 조직별로 그리고 자체의 실정에 걸맞게 선전반조직, 시내홍보, 전자우편발송, 인터넷을 통한 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회창의 죄행과 위험성을 폭로함으로써 각계 민중속에 반이회창여론을 높여 나가야한다.

현시기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을 6.15공동선언관철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여나가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구호를 들고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거세찬 파고속에서 이회창의 ≪주적론≫, ≪검증론≫, ≪상호주의≫철회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주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야한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반이회창투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청년학생들이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하여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민주주의세력의 단결을 강화해서 이회창역적을 종국적으로 매장할수 있다.

청년학생들이 올 상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강요를 반대하는 노동형제들의 투쟁에 연대투쟁으로 확대해나선 것이나 방학을 맞아 공활, 농활을 주동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다.

최근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 조건에서 반이회창투쟁의 구호를 들고 지체없이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범국민적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이회창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적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역적이 민족과 국민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 역사는 그가 누구이든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역할때 수치스런 파멸과 개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뜨거운 열정과 정의로움을 간직하고 반이회창투쟁의 선봉에 서서 각계민중과 힘을 합쳐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하고야 말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종교인들의 자세

구국의 소리 9월 4일



평양 봉수교회 찬양대 40여명(우측 뒤)이
예배순서에 찬양의 합창을 부르고 있다

지금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민중적작태가 날이 갈수록 극도에 이르고 있다. 이회창은 온 겨레가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고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론을 부르짖으며 제2의 냉전을 몰아오고 있다.

얼마전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까지 걸고들면서 선언에 명시된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친다느니 뭐니하면서 대북관계의 재검토를 운운하면서 미국의 정견, 친미사대매국노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드러냈다. 심지어 이회창은 차기 대통령자리까지 넘겨다 보면서 이땅을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 민주의 동토지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회창의 이러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민중적행위는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선의를 귀중히 여기는 이땅의 모든 종교인들은 마땅히 민중대하의 흐름에 합세해서 반이회창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기로에 서 있을 때마다 언제나 투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싸운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민중을 반외세투쟁에로 궐기시킨 동학의 이념과 일제식민지통치시기 항일의 기치아래 전민항쟁에 합세했던 천도교인들의 투쟁 그리고 식민지 이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리고 있는 종교인들의 투쟁은 민족의 자랑이며 민족민주운동사에 길이 빛나고 있다. 민족을 팔아먹고 겨레에게 화만 끼치는 악의 무리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징벌하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의지이고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파쇼분자로써 우리 종교인들 아니 전민중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악마이며 인간세상에서 추방해야할 카인의 후예이다.

종교인들은 지난 기간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과 정신을 되살려 반이회창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종교인들은 먼저 각 종단에 망라되어 있는 신도들속에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죄악을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그들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궐기시켜야한다. 그리고 신도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친척, 친우, 동료들에 이르기까지 반이회창투쟁을 확산고조시켜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각 종교단체들과 종교인들이 신앙과 종파를 초월해서 반이회창투쟁에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것은 종교인들이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이다. 민족위에 신이 없고 민족위에 어떤 계급이나 당파적이익이 있을 수 없다. 민족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시련도 간격도 뛰어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오늘 칠천만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의지이며 날과 더불어 더욱더 절감하는 **이다.

종교인들은 종교단체들과 여러 운동단체들사이, 신도들과 각계 민중과의 공동연대투쟁을 힘있게 벌여 범민중적인 반이회창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주한미군철수,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한다.

특히 16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반이회창퇴진운동을 선언한 조건에서 여기에 적극 지지동참해서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가야 한다. 반이회창투쟁을 벌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민중을 이 투쟁에 적극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회창을 뒤두면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고 핵전쟁의 희생물로밖에 될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이다. 하기에 우리 국민은 반이회창투쟁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회 일각에서는 이회창에 대한 분노심을 가슴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선뜻 투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경향도 없지 않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들의 마음속에 응축된 분노심을 반이회창투쟁으로 폭발시키는 선도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세게 타오르는 민중의 분노로 이회창대세론을 때려부수고 역적을 지옥의 기름가마에 처넣어야 할 것이다.

반미자주냐 식민지노예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냐 파쇼냐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종교인들이 지닌 사명과 의무는 막중하다. 종교인들은 시대와 민중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서 숭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민중의 원수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종소리를 더높이 울려야 한다.



이회창, ≪대쪽≫인지 ≪쭉정이≫인지

한총련, ≪이회창정치활동 감시 선언≫



한총련이 ≪이회창정치활동 감시≫에 조직적으로 나섰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7일 오후 1시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감시단)≫의 발족을 선언했다.

감시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에서도 보여지듯이 ≪민족의 통일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정치행각을 접≫하며 ≪더이상 제어할 수 없는 ≪불도저≫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감시단을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문제는 한국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최우선적 과제로 확신한다≫며 이번 감시단활동을 통해 ≪이회창이 과연 ≪대쪽≫인지 ≪쭉정이≫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시단은 또한 이번 감시 활동을 통해 이 총재가 ≪함량미달≫의 정치인으로 판단될 경우, 그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활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감시단은 최승환(한총련)의장을 단장으로 각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중심으로 1~2인씩 구성해 전국적으로 70여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감시단은 부시대통령이 방한하는 10월 16일까지 1차로 활동을 전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활동보고와 향후 전망을 밝힐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감시단의 주요 활동은

△≪이회창 바로보기≫ 대국민선전홍보활동(유인물 1백만장 배포, 각 대학 정문에 ≪이회창바로보기≫ 선전판 세우기, 스티커제작배포, 자료집제작배포)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홈페이지 개통(http://hcy.jinbo.net/chang/)

△이회창총재에 관한 제보받기운동

△정기국회 한나라당감시활동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과 대선출마에 대한 전국대학생 의식조사

△전국대학 ≪목요 만민공동회≫개최(수집된 자료를 대중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장)

△전국 한나라당 당사 앞 동시다발 1인시위

△이회창 바로보기 공청회(가안) 등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고려대 박근운(반통일세력 단죄규탄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감시단발족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이날 프로그램엔 ≪맞다 맞아 이회창 Best 5≫를 준비해 대학생들이 뽑은 1위는 ≪부시 따라하기≫이고 5위는 ≪2대째 걸친 병역기피자≫로 선정된 것이 발표돼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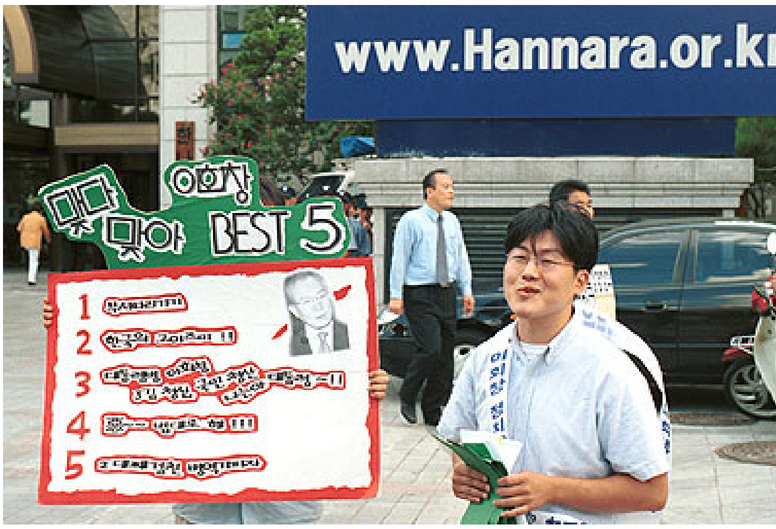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은 경기대 이경민총학생회장의 한나라당에 보내는 경고장낭독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됐다.

한편, 감시단이 한나라당에 경고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민원2국장(신원을 안밝힘)과 차용석차장이라는 사람이 당사 앞에서 감시단을 가로막고, ≪안받겠다, 이런 것 필요없다, 나도 국민이다≫ 등의 말을 하고는 접수조차도 못하게 막아 경고장 전달은 하지 못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한나라당사 앞에는 같은 시간에 고려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 투쟁위원회(반단투위)≫소속 김기열(01학번, 문과대)학생이 이회창 등 보수세력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고려대는 8.15행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반단투위를 구성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 중 하나가 한나라당사 앞 1인 시위라고 전했다.

이회창총재를 비롯한 보수수구세력에 대한 각계의 항의와 성명에 이어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 이후 그 활동과 성과가 주목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07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발족 선언문

우리 민족은 분단 이후 가장 가까이 통일의 기운을 느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우리 민족에게는 반백년보다 값진 1년을 보냈다. 민족통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허나 통일이 다가올수록 기득권이 축소되고 자신의 설자리가 좁아지는 세력이 있고 여기에 두목이 있다. 바로 이회창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더구나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보수집단은 통일뿐만아니라 온갖 허튼 수작을 부리며 사회의 진보와 민주, 나라의 자주도 가당치않게 훼방을 놓고 있다. 그 도가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며 불안하게 만들려는 행보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고이즈미로 일컬어지는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 나라의 정치발전과 국민과 민족을 위협하고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발언과 행보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자가 우리 나라의 정치권에 그것다 야당총재에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민족의 미래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고 이를 국민들과 우리 대학생들에게 낱낱이 알리고 통일과 사회의 민주발전을 올바르게 진척시키고 이 시대 대학생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역할을 당당히 해낼 것을 선언한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일동

이회창 한나라당총재에게 보내는 경고장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에게

민족의 장래와 나라의 민주적 발전에 언제 어디서나 시비질을 걸며 민족과 우리 국민의 우환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관심사인 매향리폭격장폐쇄, 주한미군범죄를 규탄하는 국민들의 반미운동을 미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며 강경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전 민족이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역사왜곡방조와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투쟁하는 것에 친아버지를 닮아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진다며 자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호통치는 꼴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총재인지 어느 민족족속인지 밝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인 이북을 향해서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으며 남북관계개선에 심술을 부리며 ≪북한퍼주기≫, ≪주적론≫, ≪철저한 검증론≫ 등을 유포하며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파기하려는 드는 것에 한나라의 야당총재로서 자질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가뭄에 무슨 파업이고 데모냐며 정부는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역시나 서민들의 생존을 야당총재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이회창총재의 죄행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심사숙고하여도 도저히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회창총재께서 이렇듯 이 민족과 나라에 위험스러운 발언과 행보를 일삼고 이를 살펴볼때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고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젊고 새것에 민감하며 정의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학생으로 사명과 도리를 다하고자 이회창총재를 주시하며 더 이상 이러한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회창총재는 이 같은 죄행을 즉시 반성하고 사죄하지 않는 다면 민족에 버림을 받고 국민에 지탄의 돌을 얻어맞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철없는 젊은 대학생들의 말이라고 생각마시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



≪기자회견문≫

이회창총재님!
당신은 이제부터 대학생들의 감시대상입니다

이 땅의 대학생들이 당신의 행보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철학의 빈곤이 정치의 빈곤을 낳으며, 철학이 부재한 한 정치인의 행보가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 2001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의 소위 ≪돌출행동≫ 시비와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에서도 보여지듯이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인은 절대 이 나라 운명을 걸머질 수 없다 우리는 숭고한 민족의 통일문제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려는 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 정치행각을 접하며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불도저≫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게 되었다.

이회창총재는 자신을 스스로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는 그가 이번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이후 스스로 ≪국권을 맡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발언한데서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정권출범을 위한 충성맹세까지 했다고 하니 대권만 잡을 수 있다면 나라의 통일이건 뭐건 간에 상관 않겠다는 그 발상이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이회창총재가 민족의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다면 자신을 대통령감이라 추켜세우기에 앞서 과연 그런 커다란 짐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정치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문제는 한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하기에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인 대학생들이 나섰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정치활동 감시를 통해 그가 과연 ≪대쪽≫인지 ≪쪽정이≫인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 총재를바로 보기 위한 대국민선전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유능한 법관 출신, 대쪽 정치인… 이것이 이회창 총재의 우상화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자질과 행동이 과연 그러한 이미지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그의 발언과 행보를 보면 정당 총재로서 과연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아찔하기조차 하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아버지가 친일전적이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활동 전과정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만큼 투명했는지 철저히 밝혀내 대대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자그마한 정치 행보도 놓치지 않고 감시할 것이며, 우리 국민의 지향과 요구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규탄하기 위한 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다. 비리언론사주 법적처벌 하자는데 언론탄압이라며 오히려 비리주범을 옹호해 나서는 정치인, 백범 김구선생 암살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마당에도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주장하는 정치인, 민족의 대동맥 경의선 철도 연결하자는데 북의 남침통로 열어주는 것이라며 색깔시비를 조장하는 정치인… 우리는 이회창총재의 발언 하나 하나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 결정적 장애가 되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 대학생감시단은 이회창총재의 이러한 행각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의 활동을 한국사회 올바른 정치풍토정착과 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 사회단체까지 확대해 갈 것을 다짐한다. 한국에서 민생현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정치권의 당리당략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과정에서도 보여지듯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희생시키는 반민족적 행위마저도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다. 통일시대를 눈앞에 둔 한국의 정치현실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정치가 바로 서는 것은 비단 대학생들만의 바램이 아닌 전 국민적 염원이기에 우리는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활동을 한국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며 확대해 갈 것이다.

이번 감시활동을 통해 이회창총재가 ≪함량미달≫의 정치인으로 판단될 경우 그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한 활동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이것이 다가올 통일시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이 땅 백만 대학생들의 ≪행동 선언≫이다.

2001년 9월 7일

이회창정치활동 대학생감시단(단장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최승환)





공화국창건 53돐경축 중앙보고대회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4.25문화회관 6,000석 극장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공화국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제목으로 된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주체37(1948)년 9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것은 로동자, 농민의 진정한 국가주권을 세우려던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빛나게 실현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긍지 높이 선언한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주독립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회주의에로의 진군을 힘 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을 령도하시여 조국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참다운 모범을 창조하신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력사적 공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의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 지고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 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세기가 교체되는 력사적인 시기에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최고수뇌들과 함께 조중, 조로친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공고히 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화를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촉진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획기적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김영남위원장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20세기에 파산당한 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 다시금 들고 나와 조선반도의 정세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데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이 떠드는 우리의 ≪미싸일위협≫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 속심을 가리우고 미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정당화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와의 ≪대화재개≫를 표방하면서도 그와는 상반되게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미국이 강경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압력을 가하려는것은 영원히 통할수 없는 헛된 시도이며 어리석은 망상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견지하고 있는 변함없는 립장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범죄적인 적대시정책을 당장 버리고 조미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근본화근인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보고자는 일본의 반동지배층도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그릇된 정책과 부당한 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지난날의 침략력사를 미화분식하고 군국주의 부활에로 내닫는 어리석고 위험한 책동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에 언급하면서 보고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주정치, 자주적대외정책은 일관하며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다.

보고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경축 재일본조선인 축하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오형진부의장이 연설을 하였다.

대회에는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조선인민군장병들, 시내근로자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였다.





공화국정부에서 건국 53돐 경축연회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공화국창건 53돐을 경축하여 9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연회를 차렸다.

연회에는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우당 위원장들,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책임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영웅들, 모범적인 일군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오형진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가 연회에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이 연회에 초대되였다.

연회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은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후 오늘에 이르는 50여성상 우리 인민의 자주와 번영의 기치,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으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공화국의 기치밑에 전진하여 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혁명의 진두에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 가시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무궁토록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륭성번영할것이며 세기에 세기를 이어 추호의 흔들림없이 혁명적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는 공화국기발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자주와 존엄의 표대, 승리와 행복의 상징으로 더욱 힘차게 휘날릴것입니다.

오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고 긴장하지만 세계정치원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진두에 모시여 우리 혁명위업은 승리의 한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필승불패의것으로 강화되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조중, 조로친선의 뉴대가 더욱 두터워 지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더 한층 굳건히 다져 지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자주화를 위한 위업에서 공화국의 영향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와 공식관계가 없었던 적지 않은 유럽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우리 공화국과 외교 및 친선관계를 활발히 맺고 높은 급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방문을 적극화하고 있는 사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우리 당의 자주적대외정책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확증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대한 증시로 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나라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강경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헛된 시도이며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강경과 압력은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대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는것은 우리의 변함 없는 립장이며 전통적인 기질입니다.

일본의 반동지배층도 대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하여야 합니다. 일본은 죄악에 찬 과거를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려는 어리석은 책동을 당장 그만두고 과거청산문제에 대하여 성근한 립장과 태도로 나와야 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의 자주정치, 자주적대외정책은 일관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세계정치의 동란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나아갈것입니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심단결하여 신심 드높이 억세게 싸워 나감으로써 나라의 강성부흥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인민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9일 인민군장병들과 각지 인민들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새 세기의 첫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인민군장병들과 전국각지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공화국이 걸어 온 50여년의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자기들의 고장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으로는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사는 영광을 안고 찾아오는 인민군장병들과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물결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꽃바구니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한민전≫평양대표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각계층 군중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의 건국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 있고 긍지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 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또한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보안성,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평양시내 여러 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이날 전국 각지의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은 자기 고장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오랜 세월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문명하고 부강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며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련일 성황리에 진행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을 맞으며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5월1일경기장에서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공화국창건일인 9일 저녁에는 경기장이 초만원을 이루었다.

≪ㅌ. ㄷ≫의 봉화로 시작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력사를 수 놓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서 10만여명의 출연자들은 다채로운 무용과 집단체조, 음악과 배경대 등으로 조화를 맞추며 세련되고 우아한 화폭들을 련이어 펼쳐 보였다.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 따라 새 세기의 강성부흥을 향하여 힘차게 진군하는 조선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여 주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21세기의 첫 9월의 명절을 더욱 뜻 깊고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경축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가 9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홍성남동지, 양형섭동지, 백학림동지, 김중린동지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김영대위원장,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류미영위원장,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오형진부의장, 당, 근로단체 일군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초대석에는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주재 각국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야회에 초대되였다.

야회장상공에 축포가 터져 오르고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의 선률이 울려 퍼지는 속에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시작되였다.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야회참가자들은 화려한 춤률동을 펼쳐 나갔다.

≪청춘의 자랑≫, ≪나의 청춘 조국에 바쳐가리≫ 등의 노래들과 ≪옹헤야≫, ≪흘라리≫의 노래선률이 울려 퍼지고 광장상공에 불꽃축포들이 련이어 터져 오르는 속에 야회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당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강성대국건설의 돌격대, 선봉대로 청춘을 빛내여 가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에 넘쳐 있는 청년학생들은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 모신 자랑 노래 부르자≫, ≪조선의 행운≫의 노래선률에 마음도 발걸음도 맞추며 더욱 화려한 춤판을 벌리였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주체조선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

21세기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 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20세기 세계정치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 진 공화국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과 탁월한 령도의 위대한 승리였으며 자주적인 새 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화국이 걸어 온 53년의 행로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찬란히 수 놓아 져 있습니다.

일찌기 준엄한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정권건설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복된 조국땅우에 민중중심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자주독립국가를 열망해 온 민족의 세기적숙망을 빛나게 실현하시였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민중의 나라를 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쳐물리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재가루만 흩날리던 조국북반부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 높은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는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공화국은 근로민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활동의 조직자,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 참다운 사회주의정권의 위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마련하신 주체의 국가건설로선과 정책, 강위력한 정치, 군사, 경제적토대와 불패의 일심단결은 공화국이 영원히 승승장구할수 있는 위대한 유산으로 되였으며 수령님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공화국의 자랑찬 행로에는 일찍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건국위업을 높이 받드시여 주체조선을 필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찬란히 아로새겨 져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력사에 있어 본적 없는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변함없이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태양절과 주체년호를 제정하심으로써 **김일성**조선의 력사가 억만년 길이 흐르게 하시였습니다.

천재적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리론을 더욱 풍부화하시고 구현하시여 주체사회주의 조선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시였으며 공화국정권을 주체위업수행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의 주체를 불패의 보루로 다지시여 강성대국건설의 력사적 전환을 열어 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독창적인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로 제국 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시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그 존엄을 누리에 떨치시였습니다.

걸출한 령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의 거룩한 혁명실록을 수 놓아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주체조선은 오늘 세계의 그 어떤 동란속에서도 끄떡 없는 필승불패의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높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세계를 끝없이 격동시킨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방문은 공화국과 세계정치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였습니다.

21세기 태양의 찬연한 빛을 뿌리시며 20여일간에 걸쳐 5만여리의 대장정을 전설적영웅서사시로 수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국통일과 민족의 강성부흥의 앞길에 새로운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고 인류자주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며 우리 민족의 지위를 반만년의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 올려 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만민의 다함 없는 경모와 충성의 송가가 우주에 차넘치는 가운데 공화국창건절을 앞두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강택민동지의 주체조선방문은 조중친선의 영원한 강화발전과 온 세계사회주의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로 됩니다.

우리 민중은 특기할 사변들을 통하여 령도자의 위대성에 나라와 민족의 위대성이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절감하면서 온 세계가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을 민족의 령수로 모신 한 없는 민족적자긍심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욱 뜨겁게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필생의 사명으로 새기시고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8. 15광복 56돐을 맞으면서 통일의 성도 평양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도록 하시고 민족통일대축전을 마련하시여 우리 겨레의 견결한 통일의지를 온 세계에 힘 있게 과시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참말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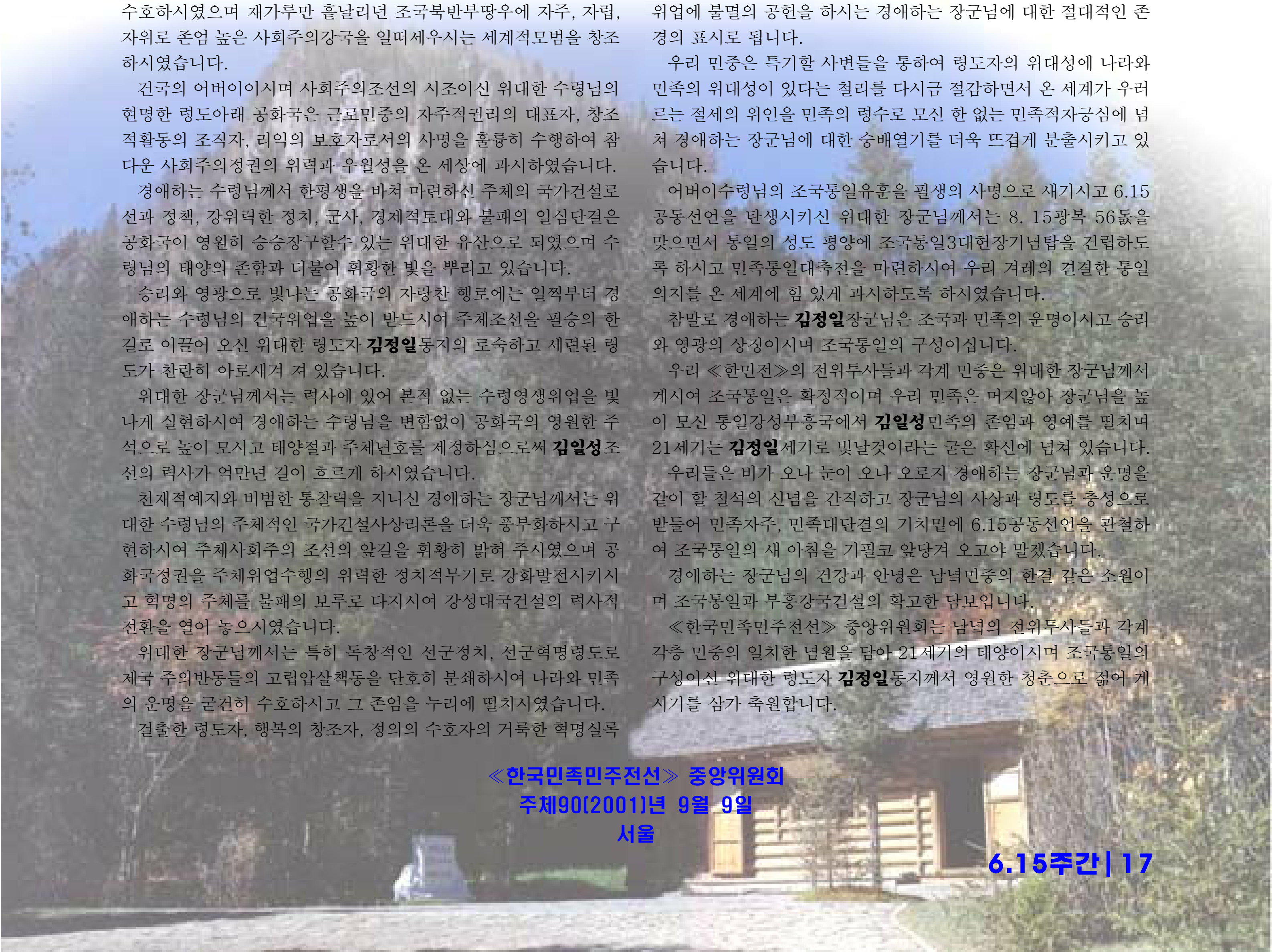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장군님을 높이 모신 통일강성부흥국에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21세기는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로지 경애하는 장군님과 운명을 같이 할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6.15공동선언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기필코 앞당겨 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은 남녘민중의 한결 같은 소원이며 조국통일과 부흥강국건설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각층 민중의 일치한 념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9월 9일
서울





중국의 당 및 국가 령도자들이 축전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홍성남동지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정부와 형제적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훌륭한 축원을 보냅니다.

53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인민은 나라의 주인이 되여 사회주의 새 국가를 건설하는 빛나는 길에 들어 서게 되였습니다.

오늘 **김정일**총비서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새 세기에 조선을 사회주의강성국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으며 조선의 여러 분야에서는 끊임 없는 새로운 발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 와 조선은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고 대외관계에서도 일련의 기뻐 할만한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조선반도정세를 완화시키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친근한 린방으로서 당신들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 하고 있으며 당신들이 앞으로 끊임 없는 새로운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날을 따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로세대프로레타리아혁명가들이 마련해 주신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여 호상방문을 강화하고 두 나라 관계의 끊임 없는 발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두 당, 두 나라 그리고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과 근본리익에 부합될뿐아니라 본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도 유리합니다.

우리들은 조선측과 함께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선린우호를 유지하고 협조를 강화한다는 정신에 따라 두 당, 두 나라 그리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리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용기
2001년 9월 8일 베이징

김정일총비서께 로씨야대통령이 축전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9일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 뿌찐이 축전을 보내여 왔다.

축전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나는 뜻 깊은 날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얼마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당신과의 상봉들에 대하여 따뜻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봉들은 의심할바없이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호혜적인 협조를 확대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입니다.

이번에 진행된 회담결과들은 우리들이 수표한 모스크바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대화를 포함한 국제문제들에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호상협력이 가일층 발전될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매우 락관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조국의 복리를 위한 활동에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친근한 이웃인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총분기하자

미제침략군 한국강점 56년에 제하여

오늘 우리는 해내외에서 조국통일열기와 주한미군철수의 목소리가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속에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 56년을 맞고 있다.

미제침략군이 비법적으로 한국을 강점한 1945년 9월8일은 우리 민중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원한의 상처를 남긴 ≪제2의 국치일≫이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불행과 재난은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이 낳은 직접적 결과물이다.

미제침략군의 한국강점 56년은 ≪해방≫이 아니라 예속, 민주가 아니라 파쇼, 통일이 아니라 분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먹구름만을 몰아온 범죄의 56년이다.

우리 민중은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 반세기이상이나 국토분단의 비극 속에 자주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모든 권리를 미제에게 무참히 빼앗겼으며 민족멸살의 핵전쟁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 전대미문의 통탄할 사태 앞에서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물론 전인류가 구천에 사무치는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56년간 미제침략군이 이 땅에서 감행해온 천인공노할 범죄적 만행을 전국민의 쌓이고 맺힌 증오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주한미군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에서 채택발표하신 모스크바선언에서 한국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견결한 반미자주적 입장을 다시금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하시었다.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이 중대한 선언은 지금 내외에서 폭풍같은 반향과 절대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투쟁에 나선 우리 국민들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중과 온 겨레는 물론 전인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북사이에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오늘의 이같은 민심과 시대의 흐름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을 그 어떤 구실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부시정권은 우리 겨레의 염원과 인류의 지향에 정면 도전해 나서고 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 땅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열풍 앞에서 당혹해난 부시정권은 이른바 ≪신국방전략≫으로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격화시키고 있다.

20세기 동서냉전의 장본인이었던 미국이 세계패권전략을 위해 한반도에 몰아오고 있는 21세기 신냉전부활의 광풍을 보라!

이북을 ≪제1주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한 미국은 있지도 않는 핵무기와 상용무기감축까지 걸고들면서 이북압살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떠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초기상황을 가상한 북침전쟁연습이 최대규모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속에 특수작전용전쟁장비들이 대대적으로 반입되고 이지스함의 동해배치와 핵선제타격을 명문화한 침략전쟁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다.

침략으로 길들여지고 침략으로 생존해온 미국의 무분별한 북침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험한 전쟁상황에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화점은 주한미군이다.

이 땅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전력이 공격형의 북침무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인된 명백한 사실이다.

그들의 임무와 사명은 미국의 대한반도전략실현의 제1선에서 제2의 북침전쟁계획을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미제가 ≪전쟁억제력≫, ≪평화유지군≫,≪유사시 대응군사력≫의 외피를 씌워 현대적 전력을 이 땅에 계속 증강하면서 주한미군의 작전력과 전투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서막이다.

미제침략군은 북침전쟁준비단계로부터 이제는 위험한 실천단계에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

우리 민중은 미국이 강요하는 온갖 불행과 전쟁을 더 이상 감수할 수 없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할 수 없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미제침략군철수를 반미자주화투쟁의 기본목표로, 최우선적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침략군이 강점한 한국과 같은 식민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고 민중의 치욕이며 용납될 수 없는 시대의 오점이다.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이것이 우리 민중과 온 겨레, 세계양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외침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화지향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침략정책을 즉각 포기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지배와 간섭의 손을 떼야 한다.

미제침략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한 우리 민중의 그 모든 불행과 고통, 재난은 절대로 가셔질 수 없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정도 바랄 수 없다.

반미투쟁이 없이는 민족의 자주도, 조국의 통일도, 사회의 민주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민족민주운동의 피의 교훈이며 총결산이다.

현실은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의 존재를 끝장내기 위한 반미투쟁에로 전국민을 부르고 있다.

각계각층 민중은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미제침략군 철수투쟁에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재산의 차이를 초월하여 결연히 일떠서야 한다.

전국민은 ≪해방자≫가 아니라 점령군인 미제침략군철수투쟁에 자기 생존, 자기 운명이 달려있음을 명심하고 총분기하자!

반세기이상 이 땅을 타고앉아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 오면서 오늘은 6.15공동선언실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며 영구주둔을 꾀하고 있는 분열의 원흉, 통일의 원수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자!

치떨리는 살인만행으로 이 땅을 피로 물들이고 우리 민족을 잔인하게 살해해온 극악한 살인마집단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남북관계를 차단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냉전의 온상, 전쟁의 화근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추방하자!

이 땅을 유독성물질로, 사람못살 황무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군을 내쫓자!

우리 국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자!

전국민은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미군철수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각계민중은 전국도처에서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자주의식을 확산시켜 숭미공미사상을 불식시키며 반미자주화운동의 대중화와 조직적 공동연대를 실현하자!

반미로 자각하고 자주로 뭉쳐싸우는 우리 민족의 정의로운 미제침략군철수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모두다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자주화투쟁에 총분기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선전국
주체90(2001)년 9월8일
서울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을 맞이하며

21세기 들어 더욱 찬연히 빛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53돌을 맞이하며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세기 공화국이 인류의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도아래 세계혁명사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며 백전백승하여 왔다면 오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따라 역사의 기적을 거듭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시는 한편 전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된 민주주의의 민중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잿더미 속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자주자립의 사회주의모범국가로 발전시키시는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하시었습니다.

국제적 수령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반제반미통일전선을 구축하시고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는 한편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올리셨습니다.

이민위천의 좌우명으로 한평생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시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시고 민중이 주인으로 한없는 행복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건국위업은 조국청사와 인류혁명사에 영원무궁토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충효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건국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는 한편 **김일성**헌법을 제정하심으로써 수령영생위업완수라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후의 대공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천재적 사상이론가이시며 노숙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주체적 건국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는 한편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주동적으로 돌파하시며 전민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들어차고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며 남부러울 것이 없는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십니다.

세계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하시며 포위환국면을 역포위환국면으로 전환시키신 장군님의 신묘한 전략으로 인하여 오늘 미국은 정치외교적으로 갈수록 고립되는 반면 조선의 국제적 지위는 최고조에 달하며 그 정치적 영향력이 온 지구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세계적 정치원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그 기세를 이어 지난해에는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공동선언을 천명하시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뚜렷이 밝혀주시는 한편 최근에는 러시아공식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시며 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21세기 자주화위업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창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전략으로 빛나는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은 영구분단음모와 세계제패전략에 피눈이 된 미제국주의에게 가장 정확하고 심대한 정치사상적 타격으로 되는 반면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에게는 통일강성대국건설과 전세계자주화의 휘황한 전망을 안겨주는 역사의 좌표, 필승의 보검으로 됩니다.

지금 진보적 인류는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장장 5만리 대장정에 오르시어 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시고 새세기 자주화대강을 밝혀주시는 한편 사회주의붕괴 이후 붉은광장에서 처음으로 열린 명예의장대의 분열행진 속에 레닌묘를 찾아 헌화하시는 위대한 혁명가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적인 노고와 숭고한 도덕의리에 눈시울을 적시며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하에 자주의 궤도따라 백전백승하며 전진하는 주체조선은 7천만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어머니조국이며 진보적 인류가 유일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주체사회주의조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남 민중 속에는 조국통일도 세계변혁도 다 맡아 나서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참된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며 민중중심 민중복락의 공화국이야말로 우리 민중이 수수천년 꿈꾸어오던 지상낙원이라는 칭송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필승불패 전위당의 향도따라 주체의 조국을 바라보며 투쟁하는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광범히 전파하는 사업에 통일혁명의 지름길이 있고 최대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명심하며 위대성선전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과 모스크바선언이 발표된 역사적 조건에 맞게 전략전술을 신축성있게 구사하는 한편 당면해서 광범한 국민대중을 반미반이회창투쟁에 총분기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에서 기수가 되고 선봉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만수무강은 7천만 겨레와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소망이며 최대염원입니다.

이남 청년주체주의자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며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 ≪구국의 소리≫ 편집인
주체 90(2001)년 9월 9일
서울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주체의 청년운동은 위대한 영도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간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10호)



오늘 8월 28일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건하신 날이며 바로 청년절이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이하며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승리해 온 주체의 청년운동을 뜻깊게 회상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시고 현명히 영도하신 주체의 청년운동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최전성기를 맞으며 승리의 한길로 나아가고 있다.

주체의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청년운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한계와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던 1920년대 초 조선청년운동에 광범한 청년대중에 의거하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새로운 청년운동사상을 제시하시며 이를 탁월하게 구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1926년 10월 17일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후, 1927년 8월 27일 대중적인 비합청년운동조직인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동년 8월 28일 드디어 조선청년운동의 지도핵심조직인 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건하시었다.

위대한 주체의 사상이론과 위력한 참모부를 가지게 된 조선청년들은 청년학생, 농민, 노동자대중 속으로 진출하며 광범한 군중적 지반을 축성하는 한편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항쟁을 조직하며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이후 조선청년운동은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혁명적 기치를 내걸고 항일유격대를 조직하여 소왕청방어전투, 보천보전투과 같은 유격구방어전투, 국내진공작전에서 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 위훈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규모 민족통일전선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후 1936년 공산주의청년동맹을 반일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시키시었으며 조선청년들이 사상과 종교를 초월한 통일적 청년조직으로 단결하여 앙양하는 항일무장투쟁과 대중투쟁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현명히 영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세련된 영도아래 조선청년들은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 수많은 위훈과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이는 오늘 조선청년운동의 만년재보인 영광찬 혁명전통으로 빛나고 있다.

해방이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지체없이 조선공산당 산하에 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어 진보적인 청년대중을 건당, 건국, 건군사업으로 동원하시였으며 1946년 1월 17일에는 이념과 정견을 달리하는 모든 청년조직들을 통일전선적인 민주청년동맹으로 묶어세우시였다.

민주청년동맹이라는 통일적 청년운동조직에 결집된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아래 일심단결하여 건국초기에는 민주개혁을 반대하는 친일반동세력들과의 투쟁에서, 전쟁시기에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맞서 영웅적으로 용감히 투쟁하며 승리의 길을 앞장서 개척함으로써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이룩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문헌토의사업을 전동맹적으로 진행하며 청년들을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과의 투쟁에로 동원함으로써 이남의 청년운동, 혁명운동을 말아먹은 후 이북에 기어들어와 당과 청년동맹에 종파주의를 부식시키고 끝내는 무장폭동까지 기도하였던 미제간첩 박헌영도당의 반당반혁명죄행을 폭로단죄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기적과 위훈을 달성하였다.

조선청년들은 ≪청년복구대운동≫과 ≪480분합리화운동≫으로 전후 3개년 계획과제를 초과완수하는가 하면 ≪천리마작업반운동≫과 ≪천리마학급칭호쟁취운동≫, ≪붉은기중대운동≫으로 경제건설에서나 사상운동에서나 국방사업에서나 돌격대가 되고 혁신의 기수가 되었다.

60년대 이남청년들 또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역사적인 4.21호소문과 8.15보고문을 통해 반미반이승만 4.19민중항쟁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으며 이남변혁운동승리의 관건적 문제인 주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과 영도에 의하여 1955년 8월 1일 창건된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은 주체적인 해외동포청년운동의 전형으로서, 건설된 이후 총련이 내세운 애국과업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당국의 ≪일본영주권≫놀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악법조작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였다.

민주청년동맹은 사회주의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맞게 1964년 5월에 열린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사상을 높이 받들어 자기 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강화발전하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돌격대, 주력군이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사상, 기술, 혁명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선봉이 되고 ≪3대혁명소조≫에 망라되어 청년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 한편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비롯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으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웅대한 10대전망목표를 수행하는데서 돌격로를 개척해 나아갔다.

이남청년들은 전국민주화청년학생총연맹을 조직하며 70년대말 부마항쟁으로 박정희군사통치를 전복시키는 한편 80년대에는 영웅적인 광주항쟁과 전민중적인 6월항쟁의 주력이 되어 전두환파쇼통치를 끝장내는 불멸의 위훈을 창조하였으며 그 성과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로 조직화하였다.

7, 80년대 재일본청년운동도 또한 광범한 청년대중속에 뿌리박고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된 혁명적인 청년조직으로 장성발전되었으며 재일본조선민중의 애국위업을 이룩하는 사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동포운동에서 선봉이 되었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1996년 1월 17일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대표자회의를 열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아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전화발전하였다.

이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옹위하는 500만의 총폭탄,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관철하는 청년전위가 되어 제국주의연합의 대조선압살책동, 대자연재해를 비롯한 전대미문의 시련과 역경을 ≪고난의 행군≫,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역사의 기적으로 창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세련된 영도아래 1992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결성된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간고한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였다.

90년대 이남 청년학생들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 한편 자주민주통일투쟁의 선봉대, 주력군으로서 영용한 투쟁을 중단 없이 전개함으로써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파탄시키는 한편 노태우, 김영삼 사대매국정권을 준엄히 단죄하며 정치적으로 매장하였다.

90년대 재일본조선청년동맹도 이남청년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해외청년운동을 하나의 기치로 결속하는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며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청년운동영도의 전기간 일관되게 통일적인 청년조직노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선청년들의 통일단결된 역량을 발동하시며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영도하시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따라 하루빨리 자주민주통일의 숙망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현재 정세는 미 부시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이회창패당, 조선일보와 같은 반통일세력들의 발악적 준동에 의하여 김대중정권이 동요하며 6.15공동선언실현에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 엄중한 국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국을 선봉이 되어 주동적으로 돌파하여야 할 우리 청년학생대오는 수많은 정파, 분파로 사분오열되어 역사가 부여한 정의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우리 청년학생대오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 변혁운동사상의 진수를 터득하여야 할 것이며 통일단결의 전략으로 고질적인 분열상을 극복하고 학생운동의 일대 혁신과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조국의 청년운동사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영도에 의하여 백전백승하며 전진해온 영광찬 승리와 위훈의 역사이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청년운동은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 따라 승리의 한길로 나아갈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28일
서울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11호)

오늘 8월 31일은 조선의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발사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며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승승장구하는 강성대국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20세기 초엽 일제치하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 지금은 인공위성을 쾅쾅 쏘아올리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연쇄도산과 제국주의연합의 포위망이라는 악조건에 유례없는 자연재해까지 당한 주체조선이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초강대국들만이 소유한다는 인공위성, 첨단과학의 정화인 인공위성을 만들어 그것도 단번에 발사성공하는 조선의 경이적인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주체조선의 위대성이자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며 조선을 자주자립의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그대로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사상과 유훈을 계승하시고 전대미문의 난국면을 돌파하시며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창건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주체의 강성대국은 바로 정치사상과 자위국방의 강국, 자립경제와 과학문화의 강국이다.

인공위성발사가 더더욱 인류를 경탄시키며 세계사적인 일대사변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고난의 행군≫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속에서 오직 자신의 힘과 기술로만 제작된 인공위성은 그 자체로 인류가 도달한 혁명정신의 절정이며 자력갱생의 신화로 된다. 조선은 인공위성의 성공적 발사를 통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일 뿐 아니라 최고수준에 도달한 주체의 강성대국임을 전세계에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다단계로케트의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소유는 동의어나 다름없기에 조선은 과학의 강국일 뿐 아니라 군사의 강국으로 세계에 명성 떨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90년대 내내 대북압살책동에 광분하던 미제국주의는 결정적인 정치군사적 타격을 받으며 대조선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할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으며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나 유고와는 달리 ≪5027작전계획≫을 수립하고도 대조선전쟁도발을 감행하지 못하였던 것은 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무장한 조선의 군사력에 압도당했기 때문이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는 90년대 내내 전쟁접경까지 치달으며 전개되었던 조미대결이 조선의 승리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장쾌한 축포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선군혁명사상의 요체이다. 조선의 군대는 수령결사옹위사상과 총폭탄, 자폭정신으로 단결한 정치사상의 강군일 뿐 아니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과학기술의 강군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계 최강의 혁명군대로 육성된 조선인민군은 오늘 주체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데서 국방건설도 경제건설도 다 맡아나서는 혁명의 기둥, 혁명의 주력군이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잠재된 무궁무진한 위력을 전세계에 단적으로 입증해 보였다.

조선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당시 미국과 일본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지며 허둥대던 모습은 한편의 정치만화였다. 미국과 일본이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지껄이며 황당한 궤변으로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미국이 세계가 다 인정하고 눈으로도 확인된 인공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라고 우겨댈수록 돌아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뿐이다. 지금 미 부시정부는 산군복합체의 조종하에 ≪미사일≫방어체계구축으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지배주의적 야심을 채우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부시정부는 내외의 격렬한 비난을 받으며 갈수록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지게 되었다. 탁월한 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공식방문과 역사적인 모스크바선언으로 부시정권은 더더욱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반미통일전선은 비약적으로 강화발전되었다.

인공위성 ≪광명성≫의 발사가 주체의 강성대국을 알리는 장쾌한 신호탄이라면 6.15공동선언은 통일강성대국을 밝히는 21세기 통일이정표, 모스크바선언은 세계자주화를 알리는 21세기 자주대강이다. 조선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에도 끄덕없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영도아래 주체의 통일강성대국, 세계자주화의 길로 나아간다. 21세기의 조선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아래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대업을 이룩하고 우리 식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주체의 통일강성대국으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21세기는 ≪광명성≫이 송신하였던 **김일성**장군,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이 전 지구를 덮고 온 우주에 차넘치는 주체의 연대기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체 90(2001)년 8월 31일
서울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9월 8~9일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6개월동안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은 이북의 성의있는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북은 지난 2일 통일부장관에게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의 이 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애국적이고 건설적인 제의이며 특히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이남의 220여개 정당단체들과 북측의 많은 정당단체들이 남북사이의 민간사절들뿐 아니라 당국도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북측의 이러한 긍정적인 제안과 그에 대한 남측의 호응으로 하여 6개월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다시금 열리게 됐는데요. 지금 칠천만겨레는 남북장관급회담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이 소식에 접해 모두 기뻐하고 있으며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모든 남북대화가 성과리에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맺자면 회담분위기조성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화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극하는 강경정책과 언동, 전쟁연습을 벌이는 속에서는 절대로 대화가 잘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채택후 네번에 걸치며 진행됐던 남북장관급회담이 중단된 것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한미가 합동해서 북을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전쟁연습을 벌였기 때문이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세력을 비롯한 일부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방해책동을 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시기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앞장에 서서 방해해온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 작태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대신 지난 7일에도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또다시 상호주의와 투명성, 국민합의검증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반통일분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수 없고 여러 갈래의 대화도 성과리에 진행할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남북장관급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펴지말아야하며 북을 자극하는 일체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지난 시기 반통일행동으로 역사와 민족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다시는 남북관계개선에 방해되는 일체 행동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한나라당은 ***에 국민들의 절절한 지향을 똑바로 보고 이번 서울에서 진행되는 5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제동을 거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우리 민족 모두의 기대에 걸맞게 좋은 결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시간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국의 소리
1053mHz, 3840, 4120, 4450, 4557, 6010kHz

재개되는 장관급회담의 성과적 진행을 바란다

≪성명≫

남북사이의 장관급 회담이 중단된 지 6개월만에 다시 재개된다고 한다.

지난 3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얼어붙었던 남북 당국자간의 만남이 참으로 어렵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

외세의 압력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그 순간에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온 겨레의 열망과 노력은 참으로 헌신적으로 전개되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기념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의 성사, 그리고 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공동행사의 개최는 이러한 온 겨레의 열망이 모아져 이룩된 것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결의 살아있는 승리선언이었다.

민간급에서 확인된 남북사이의 교류와 단결 의지는 민족의 화해와 단결을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노력이 이미 당국자간의 것만이 아닌 온 국민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었다.

온 겨레가 함께 밀고온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노력은 평양행사를 둘러싼 수구냉전세력의 공방으로 그 의의가 훼손되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선일보로 대변되는 이러한 세력들은 이번 기회에 몇 가지 돌출행동을 그 무슨 광란극으로 몰아가는 마녀사냥을 일삼더니 급기야 현정권의 햇볕정책까지 파탄내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무위로 돌리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수구냉전세력의 추악한 냉전 광풍이 몰아치고, 이해와 단합의 노력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왜곡되는 상황에서 재개되는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온 겨레의 의지가 냉전세력들의 저항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며 6.15남북공동선언 합의의 당사자인 남북 당국자간의 회담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대화와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은 모두 소중히 지켜져야 하며, 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남과 북 모든 성원들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세력들은 자신들도 민족구성원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책무를 안고 있음을 자각하고, 더 이상 민족의 통일의지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온 겨레가 진정으로 바라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남북사이의 대화는 내용없고 실속없이 만남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온 겨레는 분단 반세기만에 어렵게 만들어진 만남을 통해 보다 소중한 성과들이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이렇게 애써 만든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외세의 의해 무로 돌아가는 허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장관급회담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하여 그동안 이룩된 민간급의 교류와 접촉을 지지 지원하면서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제반 조건의 문제들을 원만히 합의해 나가는 성과있는 회담이 될 수 있기를 절실하게 기대한다.

2001년 9월 7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독도령유권을 위한 학계토론회와 개천절행사 공동개최를 제의

민족화해협의회



(평양 9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는 독도령유권을 위한 북과 남의 학계토론회와 오는 10월 3일 단군릉에서의 개천절행사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성대히 개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가질것을 남측 해당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제의한것과 관련하여 7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온 겨레에게 뜨거운 통일열기를 심어 주고 6.15공동선언리행의 활로를 열어 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은 겨레의 마음속에 뜻 깊은 추억으로 새겨 져 있다.

분렬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이번 8. 15민족통일대축전은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호상 리해를 두터이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한 의의 있는 사변으로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훌륭한 결실이다.

특히 이번 평양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를 전진시켜 나가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지금 온 겨레는 한결같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이 북남관계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을 더 한층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계기로 되였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축전에 참가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대표들은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에서 북남당국사이에도 대화와 협상이 빨리 이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해 나가며 북남당국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재개를 원하는 축전참가대표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북남당국사이의 대화를 조속히 개최할데 대한 립장을 천명하였으며 마침내 북남상급회담이 재개되게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8. 15민족통일대축전이 이번에 열리게 되는 제5차 북남상급회담개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게 된다.

우리측의 이 건설적인 조치는 세상에 알려 지자마자 내외여론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에서 유독 ≪한나라당≫의 일부 우익보수세력들만이 우리측의 통일지향적인 대화제의가 그 무슨 남측의 일개인을 구출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 진 조치라고 떠벌이였다.

우리는 온 민족이 열렬히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결사반대하며 겨레의 한결 같은 념원에 의해 취해 진 북남당국대화재개조치마저 헐뜯어 대는 ≪한나라당≫ 반통일세력들의 범죄적행위를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우리 민족화해협의회는 이번 8. 15민족통일대축전의 귀중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온 민족의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끝까지 실현해 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립장으로부터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이번 통일대축전에서 채택된 공동보도문의 합의사항들이 하루빨리 리행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당면하여 독도령유권을 위한 북과 남의 학계토론회와 오는 10월 3일 단군릉에서의 개천절행사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성대히 개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빨리 가질것을 남측 해당 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제의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인사들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자주통일의 대로를 따라 우리와 함께 힘차게 전진해 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의 공안당국이 민족의 통일운동발전에 공헌한 8. 15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에 대한 견해를 바로 가지고 구속한 대표들을 지체없이 석방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서부지역통일연대 방북보고대회 및 2001민족통일대축전 왜곡 음해책동 규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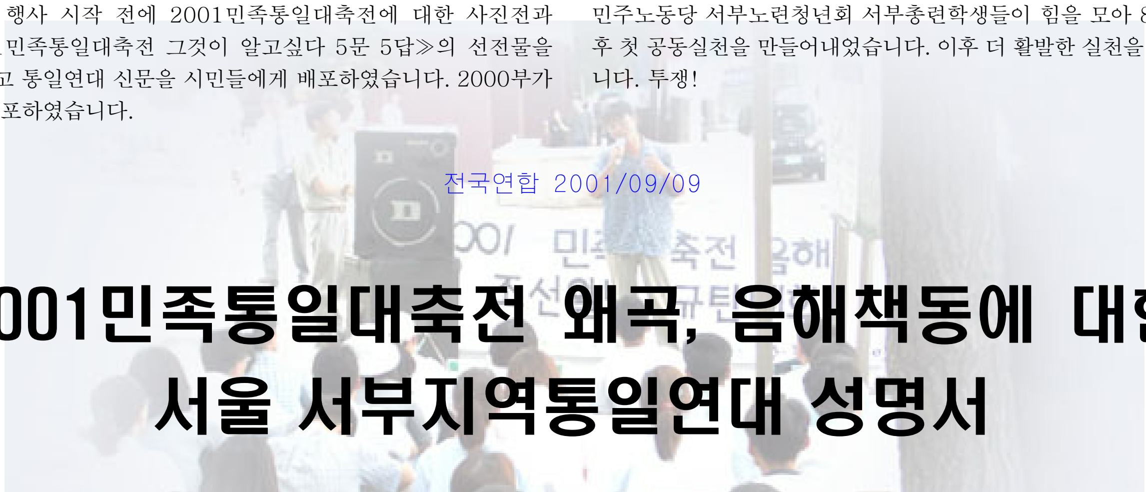
9월 8일 오후 1시 20분부터 3시까지 시촌 구신촌문고 앞에서 ≪서울서부지역통일연대 방북보고대회 및 2001민족통일대축전 왜곡 음해책동 규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선전전과 약식집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 전에 2001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사진전과 ≪2001민족통일대축전 그것이 알고싶다 5문 5답≫의 선전물을 전시하고 통일연대 신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2000부가량을 배포하였습니다.

선전전 이후 방북보고 발언, 규탄발언 등으로 약식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2001민족통일대축전 왜곡 음해 책동에 대한 서울 서부지역통일연대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주말 투쟁 일정이 많이 겹쳐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민주노동당 서부노련청년회 서부총련학생들이 힘을 모아 8.15 이후 첫 공동실천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후 더 활발한 실천을 결의합니다. 투쟁!



전국연합 2001/09/09

2001민족통일대축전 왜곡, 음해책동에 대한 서울 서부지역통일연대 성명서

분단 이후 최대의 남북간 민간교류가 이루어졌다.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남북의 민간단체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의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민간의 몫을 다하기로 약속하였다.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문인, 경제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의 만남이 진행되었고, 이 만남의 성과를 이어 이후에도 계속적인 공동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민족공동의 문제인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문제나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한 민족적 차원의 공동대응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 하나 하나가 얼마나 큰 성과이며 소중한 성과인가. 미국 부시행정부의 내정간섭과 남측당국의 자주성 없는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군사적 긴장국면, 그리고 그로 인한 남북당국간의 대화단절상태에서 민간이 나서서 이렇게 큰 일을 해놓지 않았는가.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남북민간의 교류와 단결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라섰고 정부 당국간 대화도 재개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뜻깊은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무효화하고 더 나아가 이 땅에 분열과 대결의 과거를 다시 살리려는 세력들이 있다.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 수구보수세력들과 그 대변지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갖은 과장과 왜곡, 추측보도와 성명, 논평을 서로 주고받으며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평양광란극≫으로 몰고 갔다. 애초에 장소문제는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고, 방북대표단내부의 혼란은 추진본부내에서 잘 평가하고 고치면 될 문제였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돌출행동≫이란 방북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있던 일 또는 일과성 헤프닝 정도의 일이었다. 보수-진보가 총망라된 방북단 내에서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은 문제가 왜 한나라당과 언론에 의해 ≪평양광란극≫으로 매도되어야 하는가.

≪광란극≫은 평양에서가 아니라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회창을 비롯한 수구보수세력들과 족벌언론의 마녀사냥이라 할만한 여론몰이를 배경으로, 정부당국이 멀쩡하게 방북허가를 해서 방북한 범민련소속인사 6명이 잠입탈출, 회합통신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강정구교수의 학문적 양심은 ≪서울광란극≫의 희생양이 되어 사법당국에 의해 함부로 매도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보수반통일세력들은 급기야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화해협력의 성과들을 무효화하려는 속셈을 드러내었고, 임동원통일부장관 해임사태는 바로 그 구체적인 현상이다.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무비리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는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의 치졸한 의도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해협력 분위기를 파탄내고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정략적 목적이 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정략적 목적으로 민족의 이익도 민족구성원들의 염원도 함부로 짓밟는 것이 바로 이들의 본질이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족벌언론들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으며, 이회창을 비롯한 보수반통일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국민의 힘으로 퇴출되는 것밖에 없다.

정부당국은 태도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요구에 따라 정당한 민간교류에 장애를 조성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똑똑히 보고 있다. 민족의 편에 서서 민족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만이 이 정권의 사는 길임을 똑똑히 알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구속된 인사들을 석방하라. 2001민족통일대축전에서 합의된 민간교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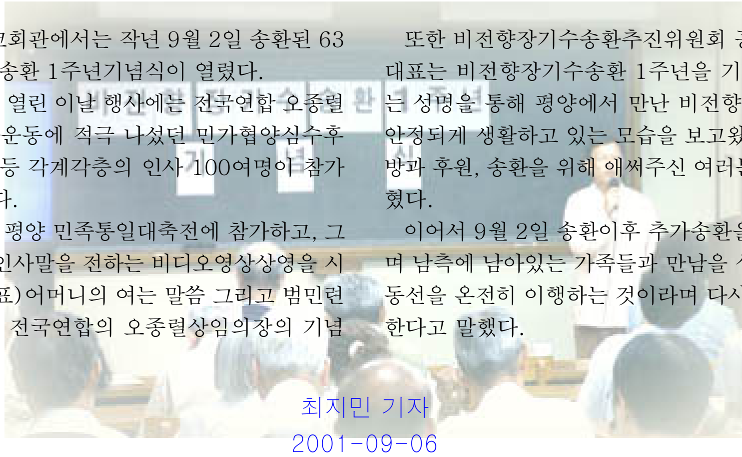
우리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는 무자격언론, 무자격정치인에 의해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가 무효화되고 민족이 분열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이회창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반통일세력들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폐기처분할 것이다. 우리는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성과를 이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 연대와 단결의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8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통일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 1주년기념식 열려

추가송환 요구 장기수와 가족들의 만남 실현해야



오늘 6일 정동 성프란시스코회관에서는 작년 9월 2일 송환된 63명의 장기수송환을 기념하는 송환 1주년기념식이 열렸다.

노진민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범민련 그리고 송환운동에 적극 나섰던 민가협양심수후원회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00여명이 참가하여 송환 1주년을 기념하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 8월 15일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그곳에서 만난 송환장기수들의 인사말을 전하는 비디오영상상영을 시작으로 임기란(민가협공동대표)어머니의 여는 말씀 그리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그리고 전국연합의 오종렬상임의장의 기념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권오헌 대표는 비전향장기수송환 1주년을 기념하며 2차송환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평양에서 만난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은 건강하고 안정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왔다며 그간 남쪽에서 그간 석방과 후원, 송환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9월 2일 송환이후 추가송환을 요구하는 장기수들이 있으며 남측에 남아있는 가족들과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2차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지민 기자
2001-09-06

좋은 벗들, 통일교육강좌 열어

임지현, ≪민족공동체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통일의 관건≫

≪같은 민족, 언어, 핏줄 등을 이유로 통일하자는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체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통일의 관건이다.≫

이는 ≪국제평화, 인권, 난민지원센터 좋은 벗들(좋은 벗들)≫이 7일 저녁 ≪7기 대화마당-통일교육을 다시 본다≫는 통일강좌에서 임지현(한양대 사학과)교수가 ≪통일논의의 새로운 장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가운데 주장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민족구성의 객관적 요소인 언어, 핏줄 등을 통일논리로 주장하는 내용은 배타적인 세계관의 표현이며, 열린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현대에서는 개인이 혹은 국가가 자신이 원하는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임지현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고 지적하고 통일헌법, 통일사회시스템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가운데에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그러한 통일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임지현교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남북한의 주민들이 가장 인간다운(=행복한)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통일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을 앞세우기보다는 한반도의 탈분단, 탈냉전을 우선 순위로 논의하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며 단계적인 통일논의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강생 중 한 여성은 ≪민족주의 혹은 역사라는 것이 최소한 서로를 공유할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임 교수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좋은 벗들에서 청년회활동을 한다는 조장래씨는 ≪한반도는 강대국에 의해 강제 분할된 나라이고 세계 국가들이 자신의 국익을 강화하는 현재의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 아니냐며 민족을 빼놓고 어떻게 통일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임교수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민족을 주장하여 신자유주의 등 국제적인 흐름을 막을 수 있느냐며 되묻고 통일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이제는 ≪국제연대≫가 강화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임지현교수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왜 반통일 세력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들을 반통일 세력이라고 규정짓는 일부의 사고는 단순한 것이며 오히려 적극적인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답했다.

나아가 임교수는 한겨레신문이나 한총련 등이 ≪완고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듯한 인상이 느껴져 이는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을 뒤집어 놓은 같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교수는 조한혜정(연세대 사회학과)교수의 ≪왜 통일된 민족국가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글귀를 인용해 민족이 아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개의 국가로 여기는 것이 통일을 이끄는데 현명한 길일 수도 있다고 마무리했다.

현재 좋은 벗들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1000일간 143회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강의가 80회로 14일 학교통일교육, 21일 사회통일교육, 28일 토론회 등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좋은 벗들은 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난민돕기, 탈북자 지원사업 등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좋은 벗들은 조계종 정토회 소속으로 법륜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08

주한미군의 56년 강점사를 알아본다

구국의 소리 9월 7～8일

미군이 인천을 상륙한지 56년이 되었습니다. 미군강점 56년을 맞으며 우리는 주한미군이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하는걸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땅의 친일세력들은 주한미군이 우리 민중의 ≪해방자≫, ≪원조자≫인듯이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6년간의 역사는 주한미군이 ≪해방자≫, ≪원조자≫가 아니라 철두철미 ≪강점군≫이고 ≪침략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의 인천상륙후 미군의 한 ***은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는 점령하기 위해 달려왔다. 우리들은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사람의 ***것≫이라고했습니다. 미군은 이땅을 강점하자마자 추악한 군정통치를 실시하고 한국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노골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살인장성으로 악명높은 맥아더는 ≪선전포고 1호≫에서 이땅에서 미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군정을 실시한다고 공포하고 미군정통치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했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미군의 한국강점역사는 한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예속시키는 역사이고 우리 민중의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도 군정통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치적지배권을 **했습니다. 미군정은 일제의 간악한 폭압통치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광복후 우리 민중의 창의에 의해 수립된 인민위원회를 강제해산시키고 저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반대하는 각계 애국민중을 비롯한 민족자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미군정은 이땅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규합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손떼묻혀 길러온 이승만을 군용기로 실어다 규합된 민족반역의 무리들과 결탁시켰고 마침내 괴뢰정권을 조작해냈습니다.

미국은 이땅에 꼭두각시정부를 조작하고 그와 각종 예속적인 불평등조약과 협정을 체결하고는 그것을 통해 정치적지배와 간섭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대사관과 CIA한국지부와 같은 현지지배기구를 두고 그것을 통해 한국의 정책**과 시행, 각종기관과 기구들을 조종,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주한미대사관은 한미간에 체결된 예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정과 조약을 통해 정치적지배권을 행사하고 한국정부의 정책입안과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IA한국지부는 식민지정권유지를 위한 파쇼모략책동과 대선용여론조작, 친미반공세력육성, 대북첩보활동 등 정보모략기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의 정권조작과 정권교체, 그리고 대통령을 떼고 붙이는 것까지 모든걸 배후조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위기에 처할때마다 여러가지 간교한 책동으로 정권교체를 해왔고 친미분자를 대통령권좌에 앉히곤 했습니다. 한국의 역대정권은 미국에 의해 출산된 식민지예속정권입니다. 한국의 역대정권은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겁니다.

미국은 또한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한국경제를 식민지하청경제로 만들어 놓고 무제한한 지배와 약탈을 자행해왔습니다. 미국은 8.15광복후 50년대까지는 이른바 원조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지배와 약탈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60년대부터는 차관과 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종속화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부터는 시장개방압력을 통해 한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와 약탈을 강화했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한국경제를 아이엠에프의 신탁통치에 걸어놓고 자기의 구미에 걸맞게 요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경제가 총제적파산위기에 놓인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식민지경제정책때문입니다.

미국은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군의 통수권을 거머쥐고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국군통수권부재, 이건 곧 예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군통수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하는 것은 독립국가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그런데 국군통수권은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한미협정과 지위권이양에 관한 각서에 따라 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갔습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라는걸 발족시켰지만 군통수권은 여전히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원조를 무기로 한국을 저들의 **군사적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불평등조약과 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이땅의 온 강토에 무제한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고 군사기지들을 설치할수 있게 했고 한국의 인적, 물적자원을 제한없이 전쟁정책수행에 **할수 있는 치외법권적행위를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주한미군이 기지사용료를 지불할 대신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미군유지비를 해마다 수십억달러씩 받고 있는 것도 한미간의 불평등조약과 협정때문이고 군통수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국군은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용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된 식민지는 이 지구촌에 오직 한국뿐입니다.



한국에 대한 56년간의 미국의 지배역사는 우리 민중, 우리 민족에 대한 대중적폭압만행과 각종 범죄행위로 이어진 역사이기도 합니다. 양키침략군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선 어느 하루도 우리 국민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군정통치시기 미군야수들은 저들의 군정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학살했습니다.

1946년 8월 15일 화순탄관노동자들에 대한 학살만행, 1946년 10월항쟁과 1948년 제주도 4.3봉기자들에 대한 집단학살만행은 그 대표적사례입니다.

6.25전쟁시기 자행한 미군의 학살만행은 세계 어느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을만큼 잔인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에서의 미군의 학살만행은 그들의 잔인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제침략군은 1950년 9월 8일부터 고작 3일동안에 서울시에서만도 3만 8,8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미제야수들은 전쟁도발후 1년기간에만도 이땅에서 무려 백여만명의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미제침략군이 이북에 대한 일제감정시 자행한 학살만행은 짐승도 낯을 붉힐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황해도 신천을 비롯한 이북도처에서 피비린 살육전을 벌였습니다. 미군은 전쟁 3년기간 남북전역에서 300만명이 넘는 양민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제살인귀들의 범죄적만행은 전쟁후에도 그칠날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약탈 등 온갖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내외에서 주한미군의 강간군단, 성폭행군단, 살인군단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56년간의 강점사는 나라와 민족을 분열시키고 조국통일을 가로막은 역사이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반세기가 넘도록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이땅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나라를 인공적으로 갈라놓았기 때문이고 주한미군을 상주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 왔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나라와 민족분열의 원흉, 장본인입니다. 8.15광복후 미군이 38도선 이남을 강점하지 않았다면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민족, 민중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립했을 것입니다.

미군은 이땅에서 자주, 민주, 통일열망이 높아질때마다 무력을 동원해 야수적으로 진압하곤 했습니다. 4.19민중항쟁과 5.18광주민중봉기를 총칼로 잔인하게 탄압하게 한 것도 주한미군입니다. 미제침략군이 이땅을 강점한 이래 우리 민중의 의로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한 횟수는 무려 5천여건에 달합니다.

미군은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전면부정하고 가로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미군은 남북간의 항시적인 긴장상태를 조성해서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매일과 같이 한미합동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고 있고 이땅에서 새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시행정부출범후 미군의 반통일책동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되자 부시행정부는 대북강경일변도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한편 부시행정부는 대규모의 각종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급진전되던 남북간의 관계개선이 최근 소강상태에 빠지게 된건 전적으로 부시강경보수세력들의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한반도긴장격화책동때문입니다.

교훈은 이땅에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미국의 통일방해책동이 지속되고 있는한 우리 민족이 그처럼 열망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없다는걸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의 자주권의 유린자이고 온갖 고통과 불행의 화근이며 반통일의 원흉입니다. 미제침략군을 이땅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 우리 민족이 지금과 같은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중 모두가 미제침략자들을 내몰기 위한 반미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이자

구국의 소리 9월 7~8일

역사의 새 세기 21세기에 들어선 오늘 세계는 자주와 평화의 거센 흐름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 간섭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이익과 안전이 외세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세기에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과 같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범죄들이 결코 수용될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더불어 세계인류는 21세기가 자주, 평화의 세기로 될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주를 지향해나가는 인류의 염원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해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며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 간섭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시미행정부의 한국강점정책과 대북강경책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한국강점정책과 대북강경책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을 영원히 강점하고 북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서 한반도전체를 병탄하고 이를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부시미행정부가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운운하며 현대적군사장비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여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을 중단없이 벌이면서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이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시행정부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철수를 반대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고 광분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시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기도를 분쇄하고 주한미군철수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서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가장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러모스크바선언에서도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러시아측은 이 입장의 이해를 표명하였고 비군사적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고 우리 민족, 민중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이고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입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반도에서 침략과 전쟁의 근원도,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통도 제거할수 없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도 이행할수 없습니다. 나아가서는 아시아와 세계평화와 안전도 보장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실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방해자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이 거족적으로 일어나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대중적으로 벌여나가자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대중을 반미의식으로 투철히 정신무장시키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합니다. 대중을 반미의식으로 정신무장시키는 것은 반미투쟁을 고양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대중을 반미의식화해야 반미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습니다.

반미의식화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속에 미국의 식민지통치의 본질과 주한미군의 실체 등을 인식시키는 것과 함께 반미자주의식을 깊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의 대중적인 참여하에 반미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도록 하는데 응분의 관심을 돌려야합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대중의 의식화와 함께 반미투쟁의 조직화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투쟁의 조직화는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구이며 그것은 대중운동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대중속에 그들의 준비정도와 의식상태, 그들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걸맞는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조직을 결성하고 그 주위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합니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각계층 민중사이, 여러 단체들 사이의 연대연합공동투쟁을 줄기차게 조직전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대연합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하는 것은 반미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요구입니다. 지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과 전국연합, 통일연대, 국민행동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사이에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해서 연대투쟁, 공동투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연대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투쟁구호를 바로 제시하고 계기들을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각계층 민중과 시민사회단체들이 ≪6.15공동선언방해하는 주한미군물러나라≫, ≪양민학살원흉 범죄원흉 주한미군은 나가라≫, ≪**** 미국을 반대한다≫ 등의 대중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투쟁구호를 제시하고 여러 계기를 이용해서 연대공동투쟁을 조직전개하는 것은 반미투쟁을 보다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데서 주목할 만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연대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여러 가지 투쟁형태와 방법, 투쟁전술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주한미군철수투쟁에로 지향시켜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게 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현시기 각계층 민중은 양민학살진상규명, 한강독극물방류사건, 미군기지반환운동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통해 미군의 범죄적만행을 폭로규탄하며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대공동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또한 작은 규모의 반미투쟁이라 하더라도 배척하지 말고 비록 사소한 증점이나 결손이 있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의 목적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소신있는 종교인, 지식인, 중소상공인 등 각계층 민중속에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벌여나가는데서 여러 계급계층은 자기의 주의주장만 내세우거나 목전의 이익에만 급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삼가하고 대중적인 반미투쟁에 합류해 나섬으로써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국민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민족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 것입니다.

미군철수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



조선외무성 대변인 담화

(평양 9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56년이 되는 날인 9월 8일에 즈음하여 6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9월 8일은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56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00여년전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기회만을 노려 온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의 종결을 계기로 패망한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미명하에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철저한 ≪강점군≫으로서 강점 첫날부터 오늘까지 조선의 분렬을 조장시키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극구 막아 나섰으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해 왔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아니였더라면 우리 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지 않았을것이다.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평화애호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모든 노력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언제나 응당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오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조선강경적대시정책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위험성을 더욱더 증대시키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6.15공동선언이후 앙양된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의 분위기에 맞게 자기의 침략군대를 하루빨리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기 위한 실천적대책을 취할 대신 오히려 우리를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우리에게 ≪상용무력축감≫문제까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있는 미군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최신장비들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려 놓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에 따르는 이러한 무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은 오늘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험만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조선주둔 미군이 북남관계와 조미관계개선은 물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없게 하는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야 말로 평화의 교란자이고 민족분단의 기본장본인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주장

로동신문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8일부 이곳의 신문들은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지 56년이 되는것과 관련한 글들을 실었다.

신문들은 반세기가 넘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사는 조선을 분렬시키고 조선민족에게 3년동안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 죄악의 력사이며 전 조선을 지배하려고 무력도발을 일 삼으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한사코 가로 막아 온 침략과 간섭의 력사이라는데 대하여 까밝히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또한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과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 있는데 대하여 신문들은 지적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은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을 군사적으로 담보하고 제2조선전쟁계획을 실행하는 일선무력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와 미국이 의연히 교전관계에 있는 실정에서 미제침략군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근본담보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는데 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야말로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룰수 없는 긴박한 문제이다.

북남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조미사이에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며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6.15북남공동선언이 나온 조건에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틀고 앉아 있을 리유와 구실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조선≫은 미국이 진실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대조선강경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2a≫발사 위성발사중지립장을 고려해 보지 않을수 없다

조선외무성대변인

(평양 9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에 있은 일본의 대형운반로케트 ≪h－2a≫의 발사와 관련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발사된 로케트는 그 용도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싸일로도 쉽게 전환될수 있는 일본의 ≪완성된 주력로케트≫라고 한다.

일본당국자들 자신이 이 로케트가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으며 지어 일본방위청장관은 그것이 ≪북조선의 미싸일에 대응한것≫이라고 내놓고 말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침략의 과거를 미화분식하는 력사외곡행위가 당국의 묵인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총리를 위시한 고위당국자들이 ≪야스구니진쟈≫를 뻐젓이 참배하는것과 같은 군국주의부활책동이 더욱 우심화되고 있다.

일본이 우리를 첫째가는 ≪표적≫으로 삼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방지침도 조선반도≪유사시≫에 대처하여 부단히 수정하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어 일본당국자들속에서는 일본이 미싸일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소리들까지 마구 튀여 나오고 있다.

이처럼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책동이 극도에 이른 속에서 진행된 이번 로케트발사시험은 명백히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특히는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심히 무모한 군사적대결책동이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번 로케트발사시험으로 하여 일본은 념불처럼 외워 오던 쟈전수방위갸의 허울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핵무장화실현의 위험천만한 도박에 공개적으로 뛰여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수만개의 핵폭탄을 제조할수 있는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과 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형장거리운반수단까지 갖추게 된 일본이 이제 군국화와 해외팽창의 길로 무섭게 질주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로케트발사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동향이다.

과학연구를 위한 평화적인 우리의 위성발사를 놓고 일본이 한사코 ≪미싸일발사≫로 몰아 붙이며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얼마나 떠들어 댔는가 하는것은 이미 잘 알려 져 있다.

그러한 일본이 오늘에 와서는 도리여 우리를 겨냥한 미싸일을 꺼리낌없이 쏘아 대며 군사적대결을 고취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은 이에 대하여 묵인비호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이 지금껏 떠들어 온 우리의 그 무슨 ≪위협≫이라는것이 바로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군국화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한갖 구실에 불과하였다는것이 오늘에 와서 더욱더 명백해졌다.

미국과 일본의 이러한 량면적인 2중기준책동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위성발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한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립장에 대하여 절대로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표적≫으로 미싸일과 그 체계개발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일본의 기도가 현실적인 위험단계에 이르고 있는 엄중한 사태는 위성발사중지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을 부득불 고려해 보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의 미싸일강령은 평화적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침해하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복수의 철추로 될것이다.





≪맥팔랜드 공개수배≫선언

시민사회단체가 한강 독극물 방류범인 맥팔랜드(미8군영안실소장)에 대해 ≪공개수배운동≫을 전개한다.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개 단체는 11일 오후 2시 미대사관 옆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미군기지 전면반환과 맥팔랜드 구속처벌≫을 위한 제2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김판태(소파개정국민행동)사무처장이 이같이 밝혔다.

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사무처장은 주한미군의 주장대로 ≪소파(SOFA)에 공무집행상 일어난 일은 미국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기에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맥팔랜드의 방류가 ≪주한미군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주한미군의 처사는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김판태사무처장은 주장했다.

따라서 김판태사무처장은 ≪일각에선 ≪궐석재판≫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맥팔랜드를 법원에 세우기 위해 공개수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매향리범국민대책위원회의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한미양국이 만나 미국이 진작 돌려줬어야 할 4천54만평의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노른자위 땅 75만평을 미국에 공유하겠다는 것이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본질≫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다름아닌 ≪연합토지사기계획≫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홍근수 상임공동대표는 ≪반세기가 넘게 이 땅을 임대료도 없이 사용한 미국은 당장 이 땅을 떠나≫고 미군기지를 전면반환 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집회에는 지난 3월 구속되었다가 10일 보석으로 풀려난 김종일(소파국민행동)상임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일상임대표는 ≪반미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론 ≪좀더 치밀하게 주위의 동지들을 어떻게 모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 몫은 여기 있는 동지들의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문정현(매향리범대위)상임대표도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2년간의 힘든 투쟁과정을 회상하면서 10월 18~19일에 예정된 ≪부시방한반대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



반미연대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의 강정근조합원은 ≪노동자도 통일과 미국의 제국주의 행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당면한 현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후



≪매각반대투쟁과 통일 문제를 연대해 투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만규(매향리주민대책위)위원장, 박유순(자통협)사무처장, 박순희(소파개정국민행동)공동대표, 김용한(소파개정국민행동)집행위원장 등도 유럽순회보고와 매향리문화제, 공격용무기도입반대투쟁, 피스보트 등의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는 실천연대의 강진구집행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쳤다.

반미단체들의 이후 주요 일정은 △용산미군기지반환을 위한 연대기구결성 1차간담회(9/12) △연합토지관리계획 규탄집회, 공청회(9/27) △MD저지를 위한 국제평화대회(10/11~13) △매향리국제문화제(10/13) △주한미군엑스포(10/14~17) △제25차 미대사관 집회(10/16) △부시방한반대투쟁10/18~19)등이다.

한편, 맥팔랜드공개수배와 관련한 일정은 녹색연합과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시민사회단체가 다음주부터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김판태 사무처장은 전했다.

이에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반미단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으며, 그 대응양상도 각계의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가 폭넓고 조직적으로 결합할 것으로 보여 이후 투쟁이 주목된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11



미군기지 전면반환과 맥팔랜드 구속처벌을 위한 제2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연합토지관리계획 기만이다! 미군기지 전면 반환하라!

한미양국은 오는 2011년까지 주한미군훈련장 3천934만평과 도심소재 기지 19개소 120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고 한국은 기존 기지주변 4개소 75만평을 미국측에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오는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번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통해 마치도 대규모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것인 양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미군의 영구주둔을 획책하는 기만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연합토지관리계획에는 우리 국민들이 줄기차게 폐쇄를 요구해 온 매향리폭격장, 스토리사격장, 용산미군기지, 평택, 부평, 군산, 원주, 춘천, 부산, 대구 등 주요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계획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고작 쓸모없는 훈련장과 도심의 용도폐기된 기지를 반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긴요한 도심주변의 미군기지를 확장하겠다는 것이 이번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본 목적이다.

결국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쓸모 없는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대신에 도심기지를 추가로 제공받아 미군의 효율적 배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그것의 시한이 2011년까지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2011년까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미군이 한반도에영구 주둔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미국의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해 아무런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한 채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의 전면 반환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한 채 미국에 사대굴종하기에 급급한 국방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 해주는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당장 모든 기지를 전면 반환하고 즉각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주한미군은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를 한국의 사법재판에 출석시켜라!

우리는 한강에 치명적인 독극물 방류하고서도 한국의 재판에 불응하고 있는 맥팔랜드와 맥팔랜드의 재판권을 주장하는 주한미군을 용납할 수 없다.

맥팔랜드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만큼 한국의 사법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미군의 주장대로 맥팔랜드의 범죄가 공무였다면, 그것은 맥팔랜드에 대한 1차적 재판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극물 방류가 주한미군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주한미군 전체와 그 책임자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독극물 방류범으로 한국의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미군은 불평등한 SOFA 규정을 내세워 맥팔랜드의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심판을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은 맥팔랜드를 승진시켜 우리 국민들을 철저히 우롱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미군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만에 가득 차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미군의 오만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맥팔랜드를 한국의 재판에 세울 것이다. 우리는 맥팔랜드를 공개수배하여 우리의 힘으로 맥팔랜드를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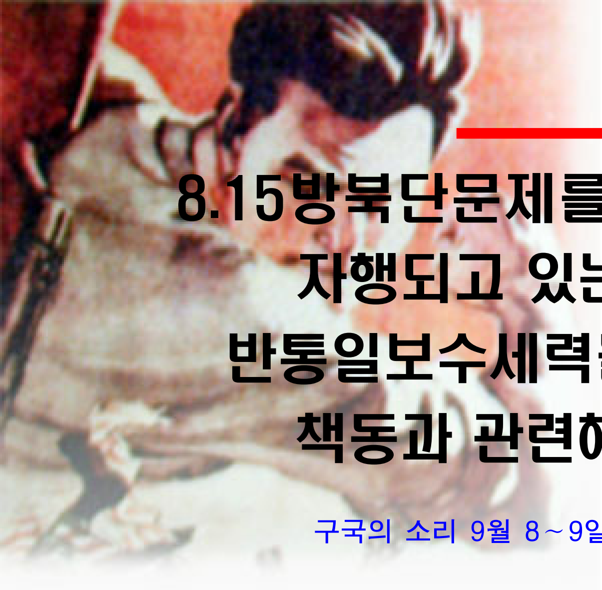
오늘 미대사관 앞에서의 우리의 집회는 만 2년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2년 동안 미군의 온갖 범죄행위에 대한 규탄과 처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지원특별협정 폐기,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 한국전쟁기간 동안 저지른 양민학살의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 매향리 폭격장, 파주 스토리사격장 등 미군기지의 전면 폐쇄, MD 구축을 위한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 반대 등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다. 우리의 이러한 투쟁은 우리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매향리범대위 미군기지공대위 소파개정국민행동
제24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일동



8.15방북단문제를 걸고 자행되고 있는 반통일보수세력들의 책동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9월 8~9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지난 2일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공조해 8.15방북단문제를 걸어 임동원통일부장관해임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키는 망동을 자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공안당국을 사촉해 지난 8월 21일에는 김포공항에 도착한 8.15방북단중 16명을 즉시 체포하는 소동을 벌였는가하면 개폐막식참가자 전원을 소환조사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또한 8월 24일에는 동국대 강정구교수와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등 7명을 구속수감했고 일부 인사들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소동을 벌였습니다.

보는 바와같이 지금 8.15방북단문제를 걸고 자행되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은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해 통일을 지향하는 이땅의 수많은 각계 민중의 분격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번에 평양에서 진행된 8.15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남, 북, 해외 대규모 각계 단체들이 참가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지를 과시한 거족적인 민족통일회합이였습니다. 특히 남측대표들이 평양축전에 참가해 민의에 걸맞게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간급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한 것 등은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할 매우 의로운 활동이였다 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이들의 방북활동을 두고 아낌없는 찬사와 열렬한 환영을 보내고 있는 건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패거리들만이 이들의 방북성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그 무슨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해 가며 공안당국을 사촉해 이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자행하면서 8.15평양축전의 성과를 묻어버리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8.15방북단사건을 계기로 임동원통일부장관을 해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을 제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6.15공동선언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남북민간급교류를 차단하며 나아가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관계를 대결원점으로 몰아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 비위를 맞춤으로써 미국에 잘 보여 차기 대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이익이 희생되고 도탄에 빠지는 것쯤은 안중에도 없는 한나라당의 극악한 반민족, 반통일성을 그대로 보여준다하겠습니다.

지금 각계에서 한나라당의 이같은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를 규탄, 배격하고 있는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제반 사실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야말로 여전히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고 분열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반민족, 반통일집단이며 권력욕에 미쳐난 광신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이같은 책동은 온 민족의 통일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행위로써 절대로 묵과할수 없습니다.

각계 민중여러분은 이같은 반역의 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을 뿐아니라 우리 민족이 더 큰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한나라당을 위시로 한 반통일보수세력을 한시바삐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이 한나라당해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9월 6일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서울대학교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당사현관 유리창과 현관에 계란과 페인트봉지를 던지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반통일, 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반통일, 반민족세력인 한나라당을 기어코 해체시키려는 굳은 의지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한나라당을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며 해체를 요구한 것은 민중의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4.8합의서≫가 나올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통일, 반민족적행위만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문제입니다만 한나라당은 ≪4.8합의서≫가 발표될때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하며 시비질을 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을때는 공동선언에 자주적통일부분이 주한미군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이산가족상호방문은 상호주의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북에 끌려다니는다느니 뭐니하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욱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평양에서 있은 8.15민족통일축전 남측대표단의 일부성원들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된 개폐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서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정국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북이 통일부장관에게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데 대해 어느 일개 장관을 구출하기 위한 우호적수단이라느니, 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느니 하고 험담을 늘어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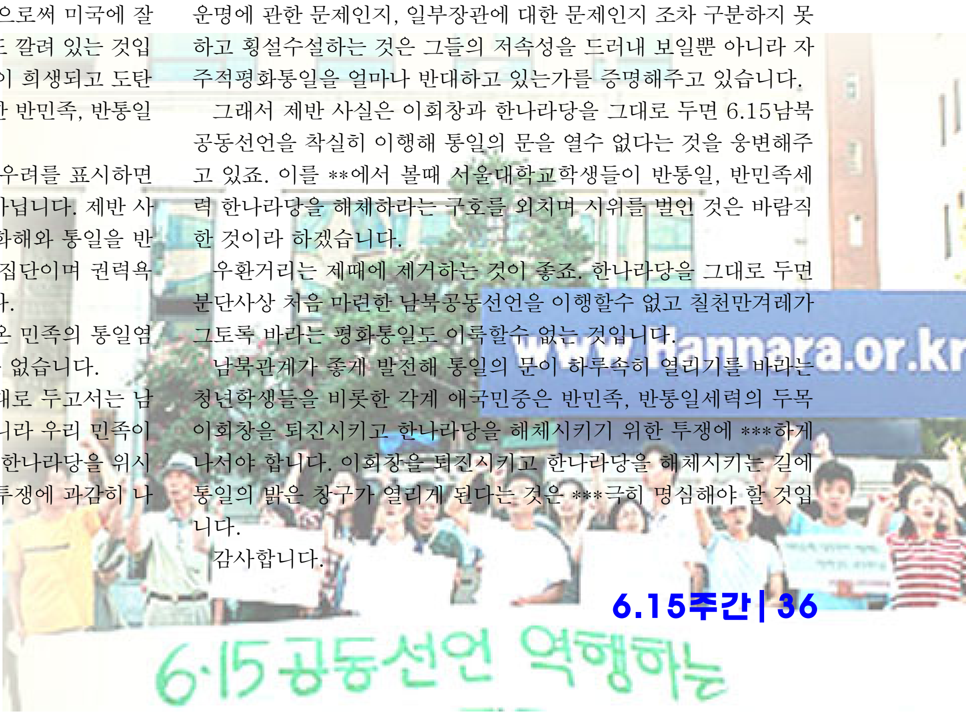
한나라당이 북의 실무대화제의가 국사에 관한 문제인지,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지, 일부장관에 대한 문제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은 그들의 저속성을 드러내 보일뿐 아니라 자주적평화통일을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가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사실은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죠. 이를 **에서 볼때 서울대학교학생들이 반통일, 반민족세력 한나라당을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환거리는 제때에 제거하는 것이 좋죠.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면 분단사상 처음 마련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수 없고 칠천만겨레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통일도 이룩할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해 통일의 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바라는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두목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에 ***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회창을 퇴진시키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는 길에 통일의 밝은 창구가 열리게 된다는 것은 ***극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국감,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평통사, 국방부 앞 1인시위

10일부터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는 국방부 정문앞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국방부의 공격용 헬기 도입의 불합리성을 국감에서 밝혀지기를 바라며 그 일환으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를 위해 평통사는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격용 헬기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보냈으며 회원들 모두가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자로 나온 기독시민사회연대 평화통일위원회 총무 김성윤목사는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국방부가 공격용헬기를 무슨 의도로 도입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일부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성윤목사는 ≪경제난이 심한 요즘 그 돈으로 경제개발 투자와 실업자구제, 가난한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중령이라고 밝힌 국방부관계자는 ≪군시각에서는 한반도가 평화정착이 됐다기보다는 아직 긴장상태이며 통일될 때까지 전쟁예방 차원에서 군사력 건설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민 개개인을 만나 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며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토론회나 면담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평통사는 국방부 국감에 방청을 위해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문의한 결과 방청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이에 대해 장중령은 ≪원래 국방부 국감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국감도중 군사기밀이 발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박석분평통사총무는 ≪폐쇄적인 국방부 정책이 밀실비리를 조장하고 있으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참관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분총무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도 참여연대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국감에 참여하려다 국방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후 평통사는 국방부 앞뿐만 아니라 17일 국감이 열리는 육군본부 정문 앞에서도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평화군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평통사의 홍근수, 서경원공동대표가 번갈아 1인 시위에 참여했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10

김준배열사 경찰의 폭력살인,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대회



97년 한총련 투쟁 국장 김준배 씨의 죽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의도적 타살견해가 제기되면서 오늘 9월 8일 종로거리는 ≪김준배열사 죽인 책임자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김준배열사 경찰의 폭력살인,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대회≫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및 한총련을 비롯한 각계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됐다.

대회사에서 임기란민가협회장은 ≪한 학생을 구속하기 위해 당시 정권은 1계급 특진에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며 ≪준배와 같은 의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진상규명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배열사투쟁 경과보고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서울지부 이준희 회장은 ≪1997년 김영삼 정권은 학교 후배를 프락치로 지목해 김준배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뒤에도 검사 정윤기는 유가족의 재진정에도 보강조사 없이 수사를 졸속적으로 일단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진상규명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위해 1998년 1년 여간 국회 앞에서 천망농성을 진행했으며 2001년 7월 4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준배열사 사망당시 변사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김준배열사 사건 담당검사 정윤기씨(현재 강원도 영월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1차소환장을 발부했으나 현재까지 정윤기씨는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현재 각계 사회단체들은 지난 9월 7일 당시 검찰의 프락치 활동을 했던 김준배씨의 학교 후배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진상규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오늘 집회에서는 97년 당시 남총련의장이었던 정의찬씨가 4년 3개월의 형집행을 마치고 참가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의찬씨는 ≪97년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영삼 정권은 대선자금 등 자신의 치부를 공개하는 한총련 검거에 열을 올렸다≫며 ≪이미 프락치로 활동했던 후배가 양심선언을 한 마당에 정윤기는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종로지역을 중심으로 유인물 배포와 선전전을 진행했다.

박정미 기자 ⓒ유뉴스
2001-09-11 16:10:00



≪인터뷰≫

김준배 추모사업회 회장 이윤정

국보법, 한총련 문제는 시대양심 문제

≪사회변혁의 원동력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지만 않았어도, 준배는 다른 민주열사들처럼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적단체 한총련≫과 겹쳐진 채 과거 속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름 김준배.

최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97년 당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투쟁국장으로 수배를 받던중 경찰의 검거를 피하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으로 발표된 김준배씨(당시 26세. 광주대졸)의 죽음과 관련해 그간 조사결과를 오는 9월 3일 중간발표에 이어 10일 최종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직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진상규명위측은 김씨의 죽음엔 경찰측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인과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4년간 계속된 경찰측의 ≪단순추락사≫ 주장과 유족측의 ≪경찰의 과잉검거≫라는 대립에 방점을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김씨의 사인 진상규명에는 특히 한 사람의 노력이 눈에 띈다.

97년 김준배씨의 사망 이후 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를 도맡아 꾸려온 이윤정씨(여. 47. 前 광주시의원).

거칠고 낮은 길 찾아가는 80년 운동권의 ≪누님≫

이석, 이종권씨 사망사건까지 겹쳐 ≪한총련=폭력집단=이적집단≫으로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던 상황에서 한 젊은이가 못다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뛰어든 이씨였다. 청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그가 걸어온 삶이 가져온 필연으로 주위에선 보고 있다.

80년대 이 지역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씨를 지금도 ≪누님≫이라고 부른다. 80년 5.18 당시 광주YWCA 간사였던 이씨는 항쟁의 기간과 마무리 과정을 보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는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힘 없고, 밑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이라는 확신을 하게 된다.

그리고 5.18항쟁동지회 회장 활동을 비롯해 80년대를 줄곧 이 지역 여성사회운동가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주력이었던 학생들과 자연스레 만나게됐고, 그 가운데 김준배도 있었다.

광주시 의원으로 활동하다 공안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고 있던 97년, 김준배의 죽음은 그에게 충격이었다.

≪감옥에서 준배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고, 먼저 준배의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학생운동권 전체가 매도되는 험한 상황에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를 진한 가슴으로 꼭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98년 4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그녀가 맨 먼저 한 일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옥바라지할 조직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발벗고 나서서 광주전남양심수후원회를 만들었다. 처음엔 그의 집을 사무실로 사용했다.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어요. 한총련의 죽음은 학생운동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지요. 어떻게든 학생운동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양심수후원회. 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 등 활동의 공통점은 ≪뒷바라지≫

그의 활동은 김준배열사 추모사업회로도 이어졌다.

추모사업회는 김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해 만들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를 중심으로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422일간의 국회 앞 천막농성에도 함께 했다. 그 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됐고, 현재 김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다.

추모사업회의 ≪열사정신계승≫을 위한 활동은 최근 광주시 각 구별로 진행된 통일대축전행사에서 특히 돋보였다. 이씨는 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장의 자격으로 남구통일축전추진본부의 추진본부장을 맡아 행사를 이끌었다. 그것이 김준배씨가 살아생전 가고자 했던 ≪애국의 길, 통일의 길≫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양심수후원회, 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 광주전남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회의 등 그가 몸담고 있는 활동들은 ≪뒷바라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의원으로서 시민대중과 ≪밝게≫ 만나던 때와 달리 스스로 거칠고 낮은 곳을 찾아 묵묵히 실천해온 날들이였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광주전남본부 역시 그가 선택한 길이었다.

시대의 양심 지키는 사람이 절실해요 국가보안법, 한총련 문제도 시대의 양심문제

≪시대적인 양심을 지키는 일이 오늘의 지성인들에게 절실해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되어야한다는 것은 이 사회의 도덕성회복에 관한 문제예요. 준배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양심과 학생운동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김준배의 이름이 국민 앞에 정당하게 존중받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이 풀리고, 국가보안법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1-09-11 16:10:00

향린교회 교우들, 강정구교수 석방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교우들로 구성된 ≪강정구교수 석방을 위한 향린교회 대책위원회(대책위)≫는 8.15 방북 대표단 일원으로 참가했다 ≪만경대 방명록사건≫으로 구속된 강정구(동국대) 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향린교회에서 7일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강정구교수가 ≪만경대정신은 항일민족정신을 뜻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언론이 ≪왜곡, 과장, 확대해석하여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강정구교수의 강연이나 저서 등을 문제삼아 조사하는 것이 명분 없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강정구교수의 구속은 ≪남북간 자주적 교류와 6.15남북공동선언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사≫라고 강교수의 즉각적인 석방을 주장하고 민간통일운동의 소중한 성과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상임대표 강영옥장로는 ≪강교수의 만경대정신에 대한 주장에 백번 동의하며 평소 그분의 강연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해 이번 대책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강영옥장로의 말에 따르면 강정구교수는 평소 성실한 향린교회의 교우로서 교회에서 통일운동에 대한 강연을 많이 했으며 그 내용으로는 6.15공동선언의 참뜻과 평화통일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 등을 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대책위 구성은 강정구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8월 21일 향린교회 관계자 몇 명이 긴급하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같은 달 26일 전체 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대책위활동에 대해 강영옥장로는 ≪이달 5일부터 한겨레신문에 강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릴레이 광고를 내고 있으며 타 대책위와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민족화해≫라는 소식지를 매달 발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지난 2일 어린이를 뺀 교우 230명 전체로부터 강정구교수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임동원전통일부장관의 해임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강영옥장로는 이번 강정구교수의 구속과 임동원전통일부 장관의 해임에 대해 ≪햇볕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후 통일문제 진전에 우려가 된다≫며 성명서를 채택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동국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정구교수 석방을 위한 동국대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하반기 강교수의 수업을 듣기 위해 불구속수사를 청원하기도 했으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당국으로부터 기각됐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동국대학교측은 ≪언급사항이 아니다≫며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현재 강교수에게 수업을 받기로 예정됐던 학생들은 타교수의 교체강의를 거부하고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자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측이 이에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강정구교수는 오늘 오전 10시 구속적부심 재판이 서울지법 422호 법정에서 있었으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동안 논쟁이 뜨겁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론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09-07

공안기관의 비인간적인 국가보안법 남발을 규탄한다!

옛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로 한 가정에 있어서 중대사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인륜지대사 조차도 수구.공안세력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 무시해도되는, 인권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김대중대통령의 공언은 한낱 허접쓰레기로 전락하였다.

수년전의 일을 가지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타인의 진술에 근거를 두고 김 건 수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기도경 보안수사대의 행위는 이미 사장되어 가는 국가보안법을 되살리려는 망상에서 비롯된 반인간적이고 몰역사적인 만행이라고 밖에는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작년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 이미 북한은 더이상 적이 아닌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아갈 동반자로 바라보고 있는 전국민적인 의식흐름에 있어서 북의 동포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국민의 뇌리에서 사장되었다.

하지만 수구, 공안세력은 자신들의 존립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결혼을 앞둔 건실한 청년 김건수씨를 구속시켜 8.15 통일대축전 12인의 대표단 구속에 이어 전국민적인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민족에게 냉전과 대립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에게 분단과 대결을 강요하였던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기득권세력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무엇인가?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남발하면서 냉전논리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악행을 중단하라.

역사의 뒤안길에서 폐기물로 처리되어야 마땅한 국가보안법의 망령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우리는 김건수씨에 대한 구속은 이미 생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되살리기 위한 공안당국의 실적올리기식, 최후의 발버둥이라고 규정한다.

더군다나 결혼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영장집행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김건수씨사건의 책임자 수원지검의 정점식공안검사는 가정파탄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정점식공안검사는 김건수씨의 조건 없는 석방, 가족에게 사죄와 함께 국가보안법유지로 민족에게 냉전과 대결을 강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려는 수구, 공안세력의 반민족적 행각의 앞잡이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 김건수를 즉각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무리한 법집행으로 가정파탄 이끄는 공안검사 정점식은 사퇴하라!

2001년 9월 7일

경기민중연대(준)



애국청년 김준배열사의 죽음을 진상규명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지난 3일 우리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그것은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 애국청년의 의문사 중간조사 결과내용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7년 김영삼정권시기 한총련간부로 수배중이던 김준배(당시 27세, 한총련투쟁국장)열사를 검거, 죽음까지의 과정에서 경찰들의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게다가 김준배열사의 후배 모씨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원프락치≫로 활동하며 500여만원의 돈을 받고 김준배열사의 은신처를 형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양심선언 하였다.

우리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애국청년 김준배열사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97년 당시 김영삼정권은 한보비리, 대선자금 파동 등 온갖 부정부패 비리사건과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붕괴 등 대형부실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고, 노동자, 농민, 학생들은 김영삼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는 등 정권은 최대위기에 몰려있었다. 차기대선이 몇 달남지 않은 김영삼정권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불법규정하고 수천명의 학생을 수배, 구속하는 마녀사냥을 벌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준배열사는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군사정권때나 있을 법한 프락치 공작이 문민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애국청년들의 목에 일계급특진을 걸어놓고 검거 열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김영삼정권의 조직적인 살인행각이며 이에 대한 진상은 명백하게 규명되어야만 한다.

당시 쇠몽둥이로 내리치는 등 폭력을 사용해 진압작전을 펼쳤던 경찰은 물론 사건 축소, 은폐를 하였던 정윤기검사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며 김영삼전대통령은 국민과 김준배열사의 유가족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현정부는 또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80여건의 의문사가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김준배열사의 의문사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또 다른 청년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는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정부하에서도 여전히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수배되어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연일 학생회장이나 한총련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도를 더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의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설자리를 잃고 사문화된지 오래다.

김대중정권은 지금이라도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수배당하고 구속당한 청년학생들을 가족의 품, 사회의 품으로 돌려보내 젊은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이나 김대중정권은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민중들의 뜻을 거역한 역대 정권들이 역사의 그늘에 나앉아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는지를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광훈

매향리국제문화제 준비위원회 발족식 개최

매향리를 아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국제문화제 되어야



6일 향린교회에서는 매향리 평화를 위한 국제문화제준비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매향리 범국민대책위 홍근수 상임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발족식에는 매향리 주민대책위 전만규위원장, 전국연합 노수희공동의장, 민주노총 이규재통일위원장등 각계각층의 대표70여명이 참가하였다.

전만규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매향리폐쇄 투쟁에 함께했던 여러동지들 그리고 매향리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연인원 3만여명이 넘었다며 그들과 다시한번 함께 하는 자리로 매향리 국제문화제를 만들자고 하였다.

또한 행사기획안 보고에서 우위영문예위원장은 명실상부 1만여명이 함께 할수 있는 대중적인 매향리 국제문화제를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히고 대중적인 참여를 이루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인터넷으로 문화제 관람권을 판매한다고 말했다.

매향리국제문화제는 10월 13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다.



이회창부터 감옥에 처넣어야

-고려대 황문일씨의 글-

이회창의 반통일광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민족대단합과 자주통일에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투쟁기세에 기겁한 이회창은 날이 갈수록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저들의 가긍한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은 평양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의 방북활동과 관련해서 때를 만난듯이 여론을 왜곡, 오도하면서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통일애국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지금 이회창은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한총련과 범민련 등 대표단성원들의 의로운 통일운동을 두고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느니 국민내부에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느니 하며 비방선전을 일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의 매문집단을 비롯한 어용나팔수들을 규합해서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통일축전의 성과를 깔아뭉개려고 획책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감추어질수 없으며 역사는 한총련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의 의로운 애국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총련과 범민련 등 통일애국단체들이 남북화해와 단합, 통일투쟁에서 싸운 공적은 그 누구도 무시할수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통일의 새아침을 앞당겨오기 위한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친 민족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이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해마다 진행된 범민족대회에 사선을 무릎쓰고 자기의 대표를 평양에 파견하여 남북청년학생들의 연대와 단합을 두터이하고 민족의 통일열망을 더욱 뜨겁게 달군 우리 청년학생들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한 것도 바로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다.

박종철, 이한열, 강경대, 김귀정, 박승희, 지나온 나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춘들이 자주, 민주, 통일투쟁에 고귀한 목숨을 바쳤던가. 하기에 우리 민중은 청년학생들을 반미투사, 통일의 꽃, 통일의 사자로 소리높이 자랑하고 있고 한총련에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을 안긴 것이다.

이번에도 한총련과 범민련 등 통일애국단체들은 평양대축전에 참가하여 자기들의 의로운 행동으로써 미국과 반통일세력의 책동으로 인해 정체상태에 있던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칠천만겨레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시위했다.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말하면 그 주범은 바로 이회창이다. 이회창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에 편승하면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해 나섰다. 뿐만 아니라 ≪상호주의≫, ≪검증론≫, ≪제도통일론≫을 부르짖으며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가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때문에 각계 민중속에서는 이회창을 둬두면 6.15공동선언이 관철될수 없음은 물론이고 제2의 6.25전쟁이 터져 국민이 핵참화를 면할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이 이번 방북단성원들의 행동을 두고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떠벌이고 있는 것도 언어도단이며 궤변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전민족이 굳게 단결해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우리 청년학생들만이 아닌 온 국민의 일치한 염원이다. 이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땅에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재야인사 등 각계각층 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대단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의지이다.

하지만 이회창은 어중이떠중이 반통일분자들을 규합해서 국민의 이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해 나서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서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족적매문지들을 부추겨 반공, 반북, 반통일여론을 조작하여 통일운동내부에 쐐기를 박고 불신과 분열을 조장시켜 보려 하고 있다.

국민내부모순을 심화시키려고 하는 장본인은 바로 이회창이며 또 내부모순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민족과 미국에 빌붙어서 분단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반통일세력간의 모순이다. 하기에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회창의 반통일책동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총련과 범민련 등 통일대축전대표단 성원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것이다.

이회창이 방북대표단 성원들의 의로운 활동을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 있는 속셈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남북당국간 대화가 차단된 상황에서 민간급의 화해와 교류마저 전면 가로막음으로써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워보려는 간악한 저의의 발*이다.

제반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역적, 민중의 원수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감옥에 가야할 대상은 통일대축전참가자들이 아니라 바로 역적 이회창이다. 정의에 불타고 통일애국에 투철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반이회창투쟁의 선봉에 서서 이회창역적을 감옥에 처넣고 민중의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 올려야 할 것이다.





분열에 미친 정신병자들을 규탄한다

서울대 이문철씨의 글 / 구국의 소리 9월 3~4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대표단에 대한 공안당국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는 속에 분열주의세력들은 갖은 반통일적인 망언과 악담들을 늘어놓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그 대표적인물은 역시 반통일광신자로 악명높은 이회창이다.

지난 8월 22일 이회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라는 것을 벌여놓고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핏대를 돋구었다. 정말 분열에 미친 정신병자만이 토해낼수 있는 악담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번 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통일의지를 다시금 내외에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간의 관계를 좋게 발전시켜 나가는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통일일념을 안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린 8.15통일행사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의 공적도 깃들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이회창에게는 이같은 애국적소행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되게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하긴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닥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에 발을 맞추어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일때 남북공동선언에 전면대치되는 ≪주한미군영구주둔론≫과 ≪국가보안법불페지론≫과 같은 반통일적인 나발을 불어대며 거기에 그 무슨 진실이 있기라도 하듯 여론환기에 광분해온 이회창이 아닌가.

민족분열의 역사를 하루라도 연장하고 거기에 의지하여 정치적 잔명을 부지하자니 이런 아전인수격인 망언도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입이 삐뚤어졌어도 계란은 바로 풀어야 한다. 이번 일을 방북대결을 고취하는 호기로 삼을 속셈에 미쳐있던 나머지 이회창은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이 국민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까지 했다.

이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의 극치인가. 통일을 염원으로 안고 사는 민중에게 있어서 그 대회합이 성대히 진행된 것은 서로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해 힘차게 떨쳐 일어설 계기로 되었으면 되었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원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오히려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더욱 심화된 것은 통일애국세력과 민족분열주의세력간의 대립과 갈등뿐이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론자는 한나라당 밖에도 있다.

지난 8월 26일 김모정치인은 이번 방북단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폐지의 논거가 이적행위를 정당화하고 법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이 ≪국가보안법불페지론≫의 정당성을 입증한 계기로 되었다는 소리다.

국가보안법으로 말하면 그것은 동족인 이북 민중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전면 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으로써 이미 전에 폐지되어야 했을 역사의 오물, 시대의 부패물이다.

인터넷 ≪한겨레≫ 8월 25일자가 지적했듯이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에 대한 이번 탄압사건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에 걸맞게 국가보안법 등 각종 걸림돌들을 제때에 정비하지 못해 생긴 파생물이기도 하다.

6.15공동선언발표와 더불어 마땅히 척결되어야 했을 민족분열주의자들과 반통일악법이 의연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족의 찬양속에 떠받들리워야 할 통일인사들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비극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철폐의 기회로 삼지는 못할 망정 불폐지의 계기로 악이용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현실은 음모적비틀기와 모략적흠집내기를 일삼으며 통일인사들을 탄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장에 재를 뿌리는 분열에 미친 정신병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수도 없고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청년학생들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했던 방북단에 대한 이번 탄압사건을 분열에 미친 정신병자들의 추악성을 더욱 극명히 드러내 보인 계기로 삼고 반통일세력을 정치무대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일대 전면전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국의 소리 9월 4~6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얼마전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이란 무엇이며 3대헌장이 통일의 유일한 절차로 된다는데 대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려면 어떤 문제들이 풀려야하는지 과제측면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자주의 입장을 존중히하고 오늘 이땅의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밝힌 6.15공동선언이 명시********하겠죠. 미국의 비호를 *****저들의 몸집을 살찌우고 있는 미군수세력은 이땅에서의 미군기지를 계속 개설하고 있고 미국의 힘을 빌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사대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는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되고 또 한반도에 ****할수 있어요.

사회자 :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는데서 다음으로 중요한건 무얼까요?

윤정원 : 남북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적대결이 없어야만 군사적대결도 가셔질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화합과 단합이 실현될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남에서 이북을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봐요. 남북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거나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자 : 그러면 남북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의 해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윤정원 : 남북의 군사적대결을 해소치 않고서는 남북관계개선도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수 없죠. 왜냐하면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오해를 가져오고 이 상황에서는 신뢰와 화해가 아니라 남북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 *****할수 있으니까요. 6.15남북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땅의 일부 반통일 보수세력은 예나 다름없이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건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라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북침위협이 고조되는한 남북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도 해소될수 없다는건 자명한 얘기죠. 그러자면 이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고 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는거죠.

사회자 :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땅에서 통일운동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나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각계층의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통일에 관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수 있어야 하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 활동을 펼쳐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땅에는 동족의 갈등을 조장하고 남과 북의 정세를 격화시켜 보려고 *** 범죄시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파쇼악법이 ***거든요. 이남에서 통일애국역량은 오늘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악법에 의하여 탄압당하고 있는데 대해 이런 상황엔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죠. 남북간의 원활한 접촉과 교류도 이루어질수 없지 않습니까. 이남민중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하고 이 파쇼적악법에 의해서 징역을 살고 있는 모든 애국세력들과 통일민주인사들은 즉시 석방돼야합니다. 이땅에서 누구나 조국통일을 위한 논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때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도 해소될수 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도모할수 있는 것이죠.

사회자 :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는데 통일의 주체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중요해요.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도라고 말할수 있어요. 통일의 주인이 우리 민족 자신인 만큼 온 민족이 대단결해서 통일의 주체역량을 마련해야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저지시키고 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어요. 그래서 전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단결해야합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는데서 해결돼야 할 몇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시점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정원 : 조국통일3대헌장을 실천하자면 현단계에서 무엇보다도 남북이 함께 합의하고 온 세상에 공약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죠. 6.15공동선언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를 다 해결할수 있는 근본담보가 다 제시됐잖아요.

사회자 :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대전충남 학생운동대토론회



1. 제기배경

97년도엔 저희도 한총련 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진보적인 학생운동을 펼치고 있던 한 일꾼의 말이었습니다.

전대협시절 독재타도의 한목소리로 투쟁을 함께 전개했던 동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가부터 운동을 함께 지향하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투쟁의 현장에서 만났을때는 어색했던

느낌들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일것입니다.

민중들의 역량이 큰 덩어리로 묶이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에서 과연 운동의 길을 걷는 우리의 청년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서로의 공통점들이 과연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인지에대해 깊에 알아보고 함께 어께 걸고 투쟁할 수 있는

청년학생들의 모습을 만들고자 [대전충남 학생운동 대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2. 토론회 의의

대우사태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한목소리로 투쟁을 지역에서 전개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속에서 능동적이고 단결된 힘이 무엇인지를 실천속에서 보일수 있는 발전적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 지역에서 첫발을 내딛는 과정이 될것입니다.

구동존이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학생운동의 통일단결을 만들어가는 장으로 나가야 할것입니다.

당면한 정세속에서 청년학생들의 나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지역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을 다할 것을

함께 결의하는장이 될것입니다.

대중속에서 현재의 한총련의 탄압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한총련의 이적규정으로 탄압을 어쩜면 더 많은 대중속에서 탄압의칼날은 무력화 될것입니다. 지역에서의

이러한 청년학생들의 연대의 구축은 공안당국의 탄압을 대중들과 함께 끊어버릴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3. 대전충남대토론회

-일정 : 9월 15일 늦은 2시
-장소 : 민족 충남대 인문대 강당
- 참가단위 : 대전연석회의, 충청학협,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충청총련
- 토론회 진행 ; 전대기련 충남지부장
- 순서
개회
민중의례
축사
주제1 : 당면한 정세속에서의 청년학생들의 역할과 투쟁과제
주제2 : 학생운동의 활성화
방안 모색
결의문 채택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충청총련

김준배열사 공동투쟁을 제안합니다

발신 : 노수석 열사추모사업회(rosuseok@orgio.net
02-336-2951)
수신 : 한총련, 각단체, 각추모사업회, 각청년회 등
일시 : 2001년 9월 10일
첨부 : 김준배열사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발표 자료
참고 : 본 내용은 ≪노수석열사 추모사업회≫에서 발의하는 것이며,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와 협의 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탤 단위 및 개인은 꼭 연락주십시오.

1. 김준배열사 투쟁을 제안하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준배열사 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김준배열사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도 놀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 운운하며 김준배열사 사건은 민주화운동 대상이 아니기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등 반론 준비에 부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분노만 느낄 뿐,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제압할 아무런 무기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저 막강한 공권력과 국가 기관과 기득권과 언론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은 오로지 의지있는 자의 단결이며, 그 주위로 모여드는 대중뿐입니다. 싸웁시다. 멈출 수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깁시다.

이제 우리 가슴에 묻어둔 원한을 천백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2. 간단한 사건 개요 - 진상규명위원회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9월 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김준배열사의 사망사건 조사에 대해 중간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① 97년 당시 경찰은 김준배열사를 검거하기 위해 프락치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1천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



② 97년 9월 15일, 경찰 검거 작전시 김준배열사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린(혹은 추락한) 지점은 4.7m~5.7m라는 것,

③ 김준배열사가 잔디밭에 떨어진 뒤 경찰이 방망이(3단 쇠파이프)로 구타하였으며, 몇차례 발로 밟았다는 것,

④ 사망원인은 추락과 구타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⑤ 당시 수사지휘를 맡았던 정윤기검사가 사망다음날 졸속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는 것(최근 소환조사 2차례거부, 동행명령장거부)

등입니다.

이상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8개월여에 걸쳐 조사한 내용이므로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 외에도 숨겨진 진실을 더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프락치공작에 대한 부분과 폭행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모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후 계획은 정윤기검사소환이 진행되면 추가조사를 더 진행할 것이며, 9월말경(더 늦춰질 수 있음)에 최종 결정(사인과 민주화운동관련여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희생자로 결정이 내려지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 보내 명예회복과 보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3. 기간 투쟁의 경과 및 약평

(1) 기간 투쟁의 경과 (서울과 영월 투쟁)

* 9월 3일 10시-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기자회견
* 9월 3일 12:30-검찰청 앞 집회 및 검찰청 항의서한 전달
* 9월 4일 2시-경찰청 앞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 9월 5일~7일-정윤기검사 소환을 위한 영월 집회 및 영월지청 항의방문
* 9월 8일 3시-≪김준배열사에 대한 경찰의 폭력살인 및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대회≫

(2) 기간 투쟁에 대한 약평

① 사건발표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였다.

위원회에서 사건발표직후 검찰청과 경찰청항의집회, 그리고 영월에서의 투쟁은 발표초기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보도와 함께 국민적 홍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② 초반투쟁의 구호와 투쟁방식이 적절하였다.

투쟁에서 들었던 주된 구호는 ≪김준배열사 폭력살인 경찰을 규탄한다≫, ≪폭력살인 은폐조작 검찰을 규탄한다≫, ≪정윤기는 위원회 소환에 응하라≫, ≪폭력살인 김영삼은 책임져라≫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쟁방식은 검찰청과 경찰청항의집회, 그리고 영월시내 집회 및 영월지청 항의방문이었습니다.

투쟁동력에서는 계승연대의 주도하에 전국연합, 유가협의문사지회, 추모연대, 김준배추사, 범민련, 한총련 등과 영월에서 농민회, 전교조, 강총련 등이 긴급하게 조직됨으로써 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③ 대국민선전활동이 부족하였다.

초반에 꾸준한 집회투쟁과 언론보도가 적절하게 진행되어 국민적 홍보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선전 홍보활동이 부족하였습니다. 영월에서의 경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 관심과 투쟁에 대한 지지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다 적극적인 설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에서 대공업적인 선전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④ 투쟁주체 및 동력형성이 부족하였다.

3일과 4일 투쟁은 급박하게 준비된 측면에서 소수의 힘으로 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8일 투쟁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한총련(서총련)의 조직화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많은 단체들, 특히 청년회 등이 함께 투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투쟁을 이끌어나갈 대책위(혹은 임시대책기구)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계승연대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해나감으로 해서 투쟁준비와 조직화에 많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⑤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구호가 상승되지 못하였다.

초반의 투쟁 구호는 어느정도 적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후 투쟁의 상승점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규탄한다≫는 내용은 요구사항으로는 내용이 불명확하고, ≪정윤기검사소환≫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요구이면서 영월투쟁에서는 적합하지만, 보다 강한 요구로 상승시켜 나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책임져라≫는 구호는 내용상 옳으나 불명확한 구호였습니다.

4. 김준배열사 투쟁의 의의 및 방향

(1) 김준배열사투쟁의 의의

현시기 김준배열사투쟁은 다양한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하게는

① 경찰에 의해 폭력살해되고 검찰에 의해 은폐조작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사회의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본질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범국민적으로 규탄하는 투쟁이며,

② 이로부터 ≪재발방지 대책≫ 등의 요구로 폭압기구, 폭압제도의 본질을 규탄하고 무력화 혹은 해체시켜나가는 투쟁이며,

③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김준배열사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게 하여 한총련이적규정을 무력화시키며,

④ 김영삼정권을 반민주적 폭압정권(법적 표현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정부)으로 규정지어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봉쇄하고,

⑤ 이에 따라 김영삼정권시절에 희생된 열사들의 정당한 명예를 되찾는 토대를 형성시키는 투쟁입니다.

(2) 당면 투쟁방향

김준배열사투쟁의 의의가 다양한 만큼 투쟁방향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주된 투쟁방향을 잡고 힘을 몰아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양한 과제들의 쟁취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① 경찰의 폭력살인 만행과 검찰의 은폐조작을 강력히 규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번 투쟁의 출발점이며 국민들을 의식화해나가는 기초입니다.

대한민국경찰이 수배자를 잡는다는 이유로 프락치공작을 자행하였고, 아파트 13층에 있는 수배자를 검거하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형사기동대 25명을 13층으로 투입하였을 뿐 아니라, 떨어진 사람을 구타, 폭행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만 사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상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밝혀야 할 대한민국 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 조작한 것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영삼정권말기이면서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하며, 관련 배후조종자 혹은 상부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②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윤기검사소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직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을 뿐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윤기검사소환을 요구해야 하며, 사건은폐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위현장 혹은 용의자검거 현장에서의 인권과 생명권보호에 관한 지침이나 법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윤기검사의 경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불철저한 수사와 조기종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③ 김영삼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의 공개 사과와 문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김영삼시절에 저질러진 폭압적 살인만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관련 책임자들의 공개사과와 문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김영삼의 공개사과를 요구해야 합니다. 김영삼은 자신이 집권하던 시절,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저질러진 한총련탄압과 살인만행, 은폐조작이 집권보장과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였는지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인 당시 경찰청장과 광주경찰청장의 사죄와 현직위 해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한 사람이 살해된 것에 대해 현직경찰청장이 국민앞에 사과하고 경찰이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3) 당면해서 들어야 할 구호

① 경찰

* 김준배열사에 대한 경찰의 폭력살인 만행 규탄한다!
* 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 경찰은 재발방지 약속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② 검찰

* 김준배열사 폭력살인에 대한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한다!
* 정윤기는 즉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실을 공개하라!

③ 관련 책임자

* 김영삼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97년 당시 경찰총장과 광주경찰청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현정부는 97년 경찰총장과 광주경찰총장의 현직위를 해제하라!





5. 주체 및 동력형성의 문제

(1) 김준배열사투쟁의 주체

이 투쟁의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한총련입니다. 계승연대도 아니고 김준배열사추모사업회도 아닙니다. 한총련은 이번 투쟁에 대한 자기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총련의 핵심 일꾼의 한명으로서, 한총련의 노선과 방침대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실천의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김준배열사였습니다. 그리고 광폭한 탄압의 시기, 조직의 안위와 보위를 위해 아파트 13층에서 탈출할 의지를 가졌던 한총련전사였습니다.

한총련은 당면 정세조건에서 이 투쟁이 가지는 의의를 타산하기 이전에 자기 조직을 목숨을 지켰던 동지에 대해 자기 책임성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 주객관적 정세를 면밀히 따진 속에 과학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교양, 설복하고 학우들을 일떠세워야 할 것입니다.

(2) 보조 동력 형성

90년대 초반과 중반을 거치면서 김준배열사와 함께 투쟁했던, 그래서 김준배열사를 직접, 간접으로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김준배열사에 대한 의리와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많은 단체, 개인들도 한국사회의 폭압적 법과 제도를 청산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이 보조 동력을 형성해서 싸워야 합니다. 한총련이 더 크게 일어날 때까지 쟁을 멈추지 말고 계속 싸워나가야 합니다.

6. 이후 투쟁계획

(1) 일정

* 9월 10일 2시-김준배열사 4주기 추모주간 선포(광주대)
* 9월 12일 1시-계승연대 대표단의 경찰청면담 - 경찰청입장, 처리방향, 재발방지
* 9월 15일 5시-김준배열사 4주기 추모문화제(광주대)
* 9월 16일 11시-김준배열사 4주기 추모식(광주 망월동)
* 9월 18일-정윤기검사소환을 위한 영월 항의 투쟁
* 9월 20일-각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 이후 고민해야할 사업

* 정윤기검사고발
* 국정감사(9월 27일) 대응 - 철저한 진상규명문제와 정윤기검사의 소환, 경찰의 재발방지 등

(3) 당면한 주요 실천

① 대국민선전홍보활동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선전홍보활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한총련 산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내와 정문 앞, 그리고 지하철, 거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각급 청년회는 사무실 주변, 그리고 지역 거점을, 또한 각 추모단체들은 사무실 주변과 지역거점, 그리고 공동실천을 전개합시다.

② 집회참석

주말집회만이 아니라 주중에 전개되는 항의방문, 선전활동, 그리고 영월투쟁 등에도 가능한 만큼 결합해서 함께 투쟁합시다.

7. 사업제안

① 성명서발표 및 공동기자회견

* 성명서를 발표합시다. 그리고 선전합시다.
* 9월 20일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합시다.

② 공동 플랑을 겹시다.

* ≪김준배열사에 대한 경찰의 폭력살인, 검찰의 은폐조작 규탄한다≫ / ≪김준배열사 폭력 살인 책임지고 김영삼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 각 학교 정문, 각 단체 사무실 앞 등등

③ 9월 20일 상도동 집회를 제안합니다.(제안서는 이후에 제출)

* 기자회견에 맞추어 적은 역량으로라도 상도동 집회를 합시다.

8. 참고 사항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truthfinder.go.kr)에 ≪철저한 진상규명! 민주화운동 결정!≫을 요구하는 글과 잘못된 논리를 펴는 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립시다.
* 민족민주열사 추모단체 연대회의 홈페이지(yolsa.org)에 관련 자료와 유인물 등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금강산기상으로 싸우렵니다

정옥 / 구국전선 9월 11일

내 이남에 살며
말로만 들어오던
아름다움의 절경 금강산

허나 오늘 내 눈으로 직접 보며
금강산 그 진미를 새로이 새겨안았습니다
구룡연 상팔담
맞은편 넓다란 바위에
정신이 번쩍 들게 새겨진 글발
≪금강산은 조선의 기상입니다.
김 정 일
1981년 6월17일≫

아, 우리 민족 제일로 위하시는
위인에겐 금강산이 그저
자연의 절경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높은 존엄
겨레의 억센 기개
조선의 기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치받듯 봉이봉이들
그 당당한 산악미는 신통히
반만년역사로 천하를 굽어보는
내 민족의 우뚝 솟은 자존이었습니다

용이 승천하는듯
장쾌한 폭포 폭포수들은
강성대국 향해 도도히 내뻗는
이북의 장엄한 기상이었습니다
희망찬 통일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 겨레의 슬기와 용맹을 담아
돌도 만가지 위용을 뽐내는가
물도 천가지 재주를 부리는가

절승경개에도 얼이 있어
그 뜻 가슴가슴에 안고
내 이제 당당히 가렵니다
담차고 아름답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금강산기상으로 싸우렵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통일강성대국의 한길을 따라
가고 가렵니다

주체 90, 9월 2일

8.15방북단문제로 임동원통일부장관을 해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임동원장관의 해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실련통일협회도 논평을 내고 정치권은 통일부장관해임요구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상당수도 임장관해임요구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가 실시한 전자투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까지 모두 927명이 투표에 참가해 54%인 505명이 임장관이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등 7대종단으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는 임동원통일부장관의 해임요구는 온당치 못하며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이회창퇴진론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중진인 이모의원은 한나라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최악의 고립상태에 처해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고립무원한 상태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이회창때문이다. 이회창의 독단과 전횡이 한나라당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을 주장하는 사회시민단체들을 ≪관변단체≫, ≪사회주의적집단≫, ≪홍위병≫으로 몰아대고 통일운동의 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친북세력의 준동≫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지지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대권을 차지할 꿈을 꾸고 있으니 정말 망상이 아닐수 없다.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이기자면 이제라도 이회창을 퇴진시켜야한다. 친일후손인데다가 법관시절 수많은 애국적인사들을 처형하는데 직접 관여한 이회창을 지지할 국민이 과연 몇명이나 있겠는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신당창당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새로 태어나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있는 인물이 대통령후보로 나서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패할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회창은 스스로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는 8월 31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모두 8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 시민노동단체는 8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올바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도입과 국회의장 직속의 정치개혁국민위원회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캄보디아 태권도협회준비위원회 결성식에서 참가자들의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2002년 태양절 기념 2.16경축 마다가스까르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지난 9일 혁명적근로자 직업연맹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9월 3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남과 북의 당국대화재개와 관련해 2일 통일부장관에게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통지문은 남북관계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촉진하는 민족의 귀중한 재보인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동안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놓았다면서 지금 남북공동선언은 날이 갈수록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겨레의 의지가 더욱 커가고 있는 때에 온 겨레의 의사를 반영해 공동선언의 정신에 부합되게 남북당국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설적인 제의에 남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통지문은 밝혔습니다.

범민련과 한총련 그리고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은 임동원통일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냉전논리에 기생하는 보수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이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고무찬양행위로 왜곡보도해 정략적이념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 이북의 대화재개제안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신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이민철씨는 한나라당의 비이성적인 처사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언제는 대화가 중단됐다고 생트집이더니 북이 막상 대화를 재개하니 또 생트집이다. 남북대화가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것으로써 민족문제, 특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수 없다. 그런데 이북의 대화재개제의를 당리당략의 정치적이용물로 악용하고 있으니 분격을 금할수 없다. 이번 사태만 놓고 봐도 이회창은 남북대화와 6.15공동선언이행에 역행하는 반통일분자임을 극명하게 알수 있다. 국민적, 민족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한나라당은 마땅히 제거돼야한다.≫
현직의원 이씨는 한나라당의 권력야망광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북의 제의에 대해 언제 한번 고스란히 수긍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북의 대화재개제의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붙여가며 시비질을 하고 있으니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했던 여당의 주요인물들과 정치적적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책동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6.15공동선언이행과 남북관계개선을 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다음해 대선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는데 있다. 한나라당의 정치정세가 이제는 도를 넘어 정상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부패적망동을 좌절시키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재앙의 화근이 될수 있다. 재앙의 화근은 비싼 댓가를 치루더라도 제때에 없애버려야 한다.≫

한총련이 조만간 서울 한양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5년만에 공개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 10명가운데 8명은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의 근로자들보다 주당평균노동시간이 훨씬 더 긴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송환 1돌을 맞으며 2일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일 이북을 방문한 노르웨이공산당 대표인 노르웨이공산당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비전향장기수송환 1돌을 맞으며 비전향장기수들이 감사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러시아 모스크바시 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인 ≪오렌스≫회사 총사장, ≪윈슬리피난스리미뜨≫회사 총사장, ≪모스디자인마슈≫주식회사 총사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박순희위원장은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규탄해 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9월 4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사이의 단독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과 중국공산당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주석사이의 회담이 3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북을 공식친선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주석을 환영해 3일 저녁 목란관에서 성대한 연회를 베푸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측의 당국간대화제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화협은 3일 이번 제의를 계기로 남북당국간대화가 흔들림없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역시 확고하게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학생 40여명은 3일 오전 서울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당사의 현관유리창과 현판에 계란과 비닐봉지 등 페인트를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은 반통일, 반체제적인 한나라당은 해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학생들의 이같은 시위는 극악한 반통일집단이며 민족반역의 무리인 한나라당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의지의 반영으로 각계의 열렬한 지지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개혁소장파의원들의 모임인 ≪바른정치인모임≫ 소속의원들은 3일 임장관 해임건의안가결에 대한 항의표시로 국회의원회관 117호실에서 3박 4일간의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3일 임동원 통일부장관해임안 국회표결에 앞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독교원로지도자인 강원형목사는 임동원 통일부장관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이 8.15방북단의 활동을 친북세력의 준동으로 매도하며 소동을 피우고 있는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의 작태는 과연 그들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인지를 의심케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 해외대표들이 모두 모여 성대히 진행한 8.15민족통일대축전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그 이행의지를 천명한 것을 비롯해 소중한 성과들을 이뤄냈다.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참으로 유익한 회합이였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 한나라당패거리들만은 처음부터 이 회합을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회합이 끝난 이후에는 남측대표들이 큰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소란을 피우고 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수 없다. 민족을 위하고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수가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미국의 앞잡이가 돼 날뛰는 것이 분명하다. 겨레의 지향과 민심에 도전하는 반통일정치, 외세에 ***이 돼 식민지 노예인지도 모르고 헤덤비는 한나라당집단을 절대로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8.15방북단에 대한 이회창한나라당패거리들의 태도는 반통일집단으로서의 그들의 정체를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은 민족의 통일을 바란적이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그 조항을 따져가며 시비를 건것도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고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길을 막아나선것도 그리고 남북협력사업을 일방적인 퍼주기라며 제동을 건것도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다.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야말로 민중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우환거리이다.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룰수 없다. 민족과 겨레에게 못된 짓만 골라하는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을 지체없이 폭파해버려야 한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97년 9월 광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의 의문사관련 진상조사**에서 경찰이 ******* 이를 통해서 김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에 따라 당시 형사기동대원에 대한 고발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나≫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한나라당의 반통일세력들이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북측의 제안에 대해 비뚤어진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 보도 제810호를 발표했습니다.
보도는 북측이 통일부장관에게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보낸데 언급하고 이같은 조치는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의이며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자들이 당국도 대화와 접촉에 나서야 한다는 일치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북측의 이러한 제의는 내외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북측의 통일지향적인 대화제의가 이남의 어느 일개 장관을 구출하기 위한 의혹이 짙다느니, 어느 장관에 대한 신임의 표시라느니 하면서 험담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도는 또 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통일대화제의가 국사에 관한 문제인지,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인지, 일개 장관에 관한 문제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민족의 대의를 협소한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속통이 좁고 정치도 모르며 무식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히 망신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족앞에 자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도는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불가리아조선친선협회에서 불레찐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주체 90, 9월 5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방북중인 중국의 장쩌민주석과 함께 4일 5월 1일 경기장에서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셨습니다.

백범 김구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가 주한미군 간첩대 정보원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재미사학자 강창규교수등이 미국 전 일본사령부 정보장교였던 조지 부일리가 백범 암살사흘뒤 작성한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교수팀은 미국 국민문서 보존관리청에서 미육군정보부 문서가운데 하나인 이 보고서를 입수해 국사편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특히 안두희가 미군 간첩대 정보원으로 활동했으며 당시 극우 테러단체인 백운사 골프단원이였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는 백범 암살의 배후가 바로 미국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고 있어 각계의 반미감정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경찰의 수배를 받다 추락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가 당초 사인발표와는 달리 경찰의 구타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금품수수와 직무태만 등 각종 비리로 경찰공무원 1,926명이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변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 중 3명이 콜레라에 전염된 것으로 2일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교포신문 ≪민족시보≫ 1일자의 **에 6.15공동선언관철 조국통일촉진재일한국인대회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동) 등 4개 단체의 주최로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가나가와 등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주석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과 홍성남 내각총리를 만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중국 장쩌민주석은 4일 ≪우의탑≫에 화한을 진정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중국 장쩌민주석은 4일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중국 장쩌민주석은 4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4일 러시아대통령**대표단, 유럽지역 ****연구회 서기장을 비롯한 손님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주석을 환영하여 베푸신 성대한 연회에서 하신 연설의 상세한 요지를 4일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중국의 장쩌민주석을 영접하시고 회담하시는 소식, 성대한 연회를 베푸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들이 보도했습니다.

주체 90, 9월 6일

지난 8월 27일 한국청소년복지진흥원에 근무하는 오모씨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국회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백범 김구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가 미군 간첩대소속 요원이였다는 충격적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미국은 김구선생의 암살사건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미국정부가 백범선생의 암살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방조나 개입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이와함께 미국이 당시 군정을 통해 국내외에 지지를 받고 있던 임시정부요원들의 귀국을 반대하고 단독정부수립을 원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하게 된 경로 또한 자세히 밝혀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부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등 100여명은 3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공고 ****광주지검*** 천주교회앞에서 김준배열의문사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1시간여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화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는 이회창이 반민주,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는 우리 민중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이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이다. 국가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맞아 자주와 통일, 민주를 궐기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던가. 이번 8.15방북단성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각계의 일치한 통일열망을 **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시기상조론을 떠들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한사코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통일열기를 가로막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두겠다는 범죄적책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와 통일은 고사하고 한국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수 없다. 파쇼적광증을 몰아오는 이회창을 당장 갈아치워야 한다.≫

전국민중연대는 4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철거용역반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3일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돈세탁방지법안이 사실상 빈껍데기법안이라는 반대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회원들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5일 또 21명의 콜레라 환자가 발견돼 전국에 콜레라환자는 모두 43명으로 늘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노르웨이 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4일 평양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북을 방문

한 중국의 장쩌민주석과 함께 4일 10만여 명의 청소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을 관람하신 소식을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중국의 장쩌민주석을 영접하시고 회담과 성대한 연회를 베푸신 소식을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러시아연방을 공식방문≫에 대한 감상회가 8월 25일과 28일 마다가스까르사회주의진보당, 마다가스까르 주체적문예사상연구학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방글라데시 사회민주주의전선과 방글라데시 조선친선협회의 공동 주최로 8월 28일 바타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9월 8일

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은 미제침략군이 한국을 강점한 때로부터 5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8일 성토문을 발표했습니다. (이하생략)

미군이 이땅을 강점한지 5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대책운동본부에서 활동하는 김모씨는 주한미군의 56년 강점사는 우리 민중에 대한 치떨리는 범죄행위로 점철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땅을 강점한 미군의 살인만행으로 인해 이땅은 그대로 미군의 인간습격장으로 화했다. 미군이 이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수의 주민이 미군이 감행한 살인과 강간, ******. 윤금이살인사건, 의정부집단윤간사건, 부평소년헬기궤짝사건 등 한국을 상대로 감행한 미군의 살인만행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인간의 피를 즐기는 희세의 살인마, 야수의 무리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이땅을 강점하고 치외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 국민은 언제가도 식민지 예속민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고 따라서 오늘의 불행과 고통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참을수 없는 재난과 불행만을 강요하는 흉악한 침략자, 살인자인 주한미군은 이땅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한양대학교 학생 박모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은 이땅을 강점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칠천만겨레의 통일열망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발광하고 있다. 이른바 *** 통치까지 쏘아박은 북침작전계획 ≪5027-98≫을 실현하기 위해 이땅에서 매일과 같이 벌이고 있는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은 주한미군이야말로 민족분열과 긴장격화의 장본인, 조국통일의 최대의 암적존재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양키침략자들을 이땅에 두고서는 칠천만겨레의 소원인 조국통일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다는 것, 바로 이것이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사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새겨진 피의 교훈이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양키침략자들을 이땅에서 지체없이 내쫓아야한다.≫

결혼식을 일주일 남짓 앞둔 전 경인총련 의장이 대학재학중 활동경력등을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자 이웃 인권단체와 가족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재임용과정에 대한 이견으로 학교측과 마찰을 빚어오던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6일 학사행정의 파행과 학습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이 7일 한나라당의 원총회라는데 참석해 북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해야한다느니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와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느니 뭐니하는 망발을 늘어놓아 각계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이북에 대해 변화와 개방을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야말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알짜무식장이인 이회창만이 내뱉을수 있는 넋두리인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등을 보장해야한다는 이회창의 망발 역시 한민족인 남과 북의 관계를 서로 다른 두 국가간의 관계로 전락시켜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추악한 분열주의자의 더러운 속셈을 드러낸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회창은 시대와 민의에 역행해 못된 짓만 골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대로 정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 1945년 일본 해군수송선 ≪우끼시마 마루≫폭침사건과 관련해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한국인징용자들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안을 거부한채 부분적배상만을 수용한 지난달 교토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노동조합연합조직인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첫 총회에서 수감중인 한국노동자 150명 전원석방과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 등 노조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미군이 이남을 강점한지 5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6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프랑스사업헌신협회에서 금메달과 명예증서를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프랑스사업헌신협회에서 금메달과 명예증서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리비아아랍사회주의공화국 9월 1일 ****가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팔레스타인국가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노르웨이공산당에서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민족 콩고대통령, 전연맹볼셰비키공산당 서기장, 이집트 민족민주당 서기장, 캄보디아 인민당위원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3돌에 즈음해 이집트 조선친선협회가 1일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어 빛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불레찐을 발행했습니다.